

사회 통합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문제

서울대학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손지훈

독일 통일 과정

-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1990년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독이 서독에 통합
- 독일 통일 후의 사회적 상황
 - 통일 초기의 동독 주민의 강력한 소비 열망과 euphoria
 - 동독 주민의 50%는 1990-91년 사이에 이직, 60%의 노동자는 실직
 - 동독의 범죄율 증가, 집값의 급격한 상승……
 - 정치적 우익의 확장과 기존 정당에 대한 신뢰 하락과 젊은 층의 극단화, 정치 이탈
- 실용적인 접근으로 냉전을 극복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회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는 독일 통일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임

언어 변화 : 서독식 말하는 법의 도입, 공산주의식 언어의 삭제

문화적 변화 : 다양화된 사고 방식, 자유로운 언론 매체

경제 체계의 변화 : 사유재산과 소비문화

노동 형태의 변화 : 경쟁적 노동 문화, 사회 복지 축소

숨겨져 있던 광범위한 감시체계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세대 갈등 : 신세대가 오히려 구세대에 비해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음

독일 통일에서 본 사회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문제

-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이 선택한 흡수 통일임에도 이질적인 두 사회의 균등한 통합 과정으로 평가는 어려움
 - 한쪽은 다른 한쪽에 편입하며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로 출발하며 도전과 실험에 직면했고, 다른 한쪽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불균형한 것
 - 서독 사람들은 경험세계와 일상문화에서 특별한 변화를 겪지 않았음.
 - 동독 체제가 무너지고 서독 체제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화, 태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식민지에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상태
 - 이런 차원에서 통일 독일의 동·서독 통합은 기본적으로 주류 다수 사회와 소수자 집단의 관계 문제라는 측면도 있음
-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 2008년 동·서독 간 기회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40년이 걸릴 것
 - 수입, 취업률, 실업자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구조적 불평등
 - 동독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
 - 사회의 정체성이 한번에 부정되고 다른 사회에 부속되게 된 데서 오는 문화적 박탈감
- 적응하지 못하는 자 : ‘이등 시민’, ‘내부 식민지’
 - 과거를 향한 향수를 넘어서 소수자그룹을 향한 공격성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현상까지

통일 후 장기적인 사회 문화적 변화

- 동독인의 60%, 서독인의 30%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생각 (2015 독일 통계청 조사)
 - 동독->서독 : 오만하고 자만심이 강하다(34%), 아는 체한다(10%), 이기적이다(8%)
 - 서독->동독 : 기대치가 너무 크고 모든 것을 가지려한다(8%), 불만이 많고(5%), 아는 체한다(4%)
 - 동독인의 20%, 서독인의 15%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생각
- 독일 통일 후 10-20년 사이에는 통일의 부정적인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한 신문 기사와 연구 보고가 많음
 - 동독을 중심으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태도가 두드러짐 : 서독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평가
 - 동독에서의 대량 실업과 사회복지체계의 붕괴 등 부정적 경험
 - 과거에 대한 향수로 인한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약진 등
- 통일 30년이 지나면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Pew Research Center, 2019)
 - 동·서독 지역에 살고 있는 조사 대상이 된 주민의 90% 이상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응답
 - 구 동독 지역에서도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5%, 시장경제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83%
 - 동유럽 문화권은 비슷한 결과를 보이거나, 구소련권은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긍정이 많이 떨어짐

독일 통일 이전과 직후의 동서독 기대여명

표 3. 1960년대 이후 동독, 서독, 폴란드, 스웨덴의 기대 여명 추이 (Nolte E et al., 2000)

	연도						
		1960	1970	1980	1989(88)*	1990(91)*	1995-97!
남성	동독	66.45	68.16	68.7	70.16	69.23	72.41
	서독	66.41	67.28	69.91	72.58	72.72	74.49
	폴란드	65.98	66.47	66.11	67.13	66.14	68.14
	스웨덴	71.03	72.04	72.59	74.6	74.7	75.96
여성	동독	71.42	73.36	74.64	76.4	76.31	79.65
	서독	71.84	73.63	76.71	79.09	79.12	80.61
	폴란드	70.5	73.05	74.6	75.68	75.36	76.59
	스웨덴	74.67	77	78.65	80.37	80.19	81.23

*폴란드 1988, 1991년 자료 | 스웨덴 1995년, 폴란드 1996년, 양독일 1997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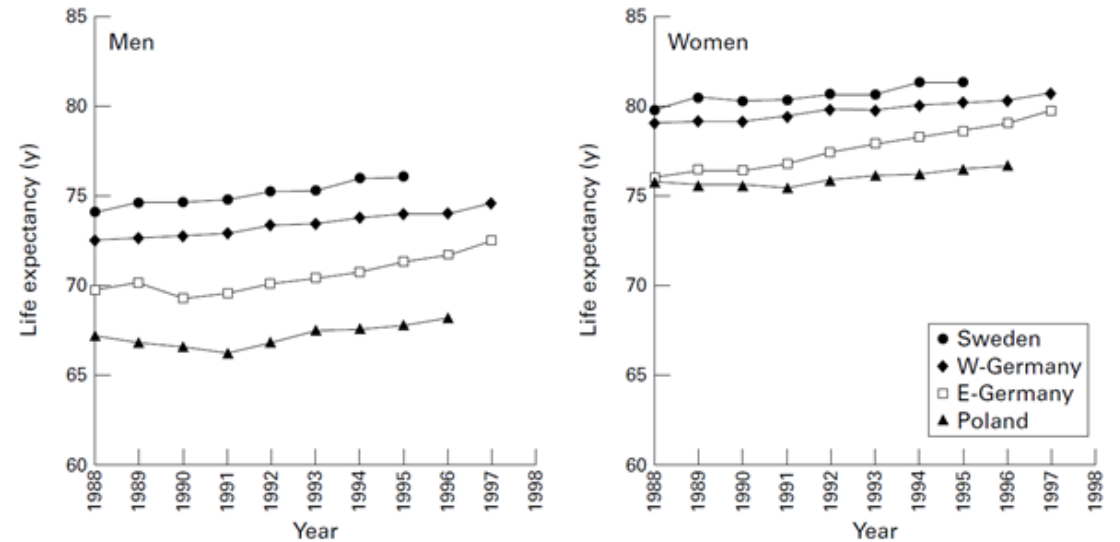


Figure 1 Life expectancy at birth in East and West Germany, Sweden and Poland in the 1990s.

그림 3. 1990년 대 동·서독, 스웨덴, 폴란드의 기대 여명 추이

(Nolte E et al., 2000)

- 20-59세 남성이 이행기에 가장 많은 영향 : 외인사와 순환기 문제
 - 외인사 : 갑자기 늘어나는 교통량, 음주 운전과 교통 안전 체계의 노후
 - 순환기 사망 증가 :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 관련되었을 가능성 (특히 심근경색에 위험성이 있는 나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집중된 점)
 - 동독과 폴란드의 소화기 질환 사망률 증가 : 주로 알코올 중독 증가관련 간경변 영향
- 체제 변화 이후 보인 일시적인 사망률 증가는 실업과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반전
 - 순환기 관련 사망률 감소는 과일과 식물성 기름의 수입이 증가, 고혈압 유행률 감소, 흡연율의 감소 등

정신건강 부하 관련 연구

- 동독 두 코흐트에서의 통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지수(Reunification Stress Index) 단면적 비교 (Boley et al)
 - Cardiovascular Disease, Living and Ageing in Halle Study (CARLA), 1779명, Study of Health in Pomerania (SHIP). 4308명
 - 심혈관 위험인자에 유의하게 연결됨
 - 여성에서의 당뇨 증가, 남성에서의 우울증 증가, 양쪽 성 모두에서의 직업 상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
 - 남성 뿐 아니라 직업 상태가 악화된 여성에서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 관찰
 - 동독에서의 노동 불안정과 대량 실업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
- 1998-1999년 독일의 국가건강조사
 - 우울증의 유병률은 동독에서 유의하게 낮음
 - 동독 쪽에서 신체적 증상에 대한 호소가 많음.
- 1990-91년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 동베를린 지역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서베를린이나, 마인츠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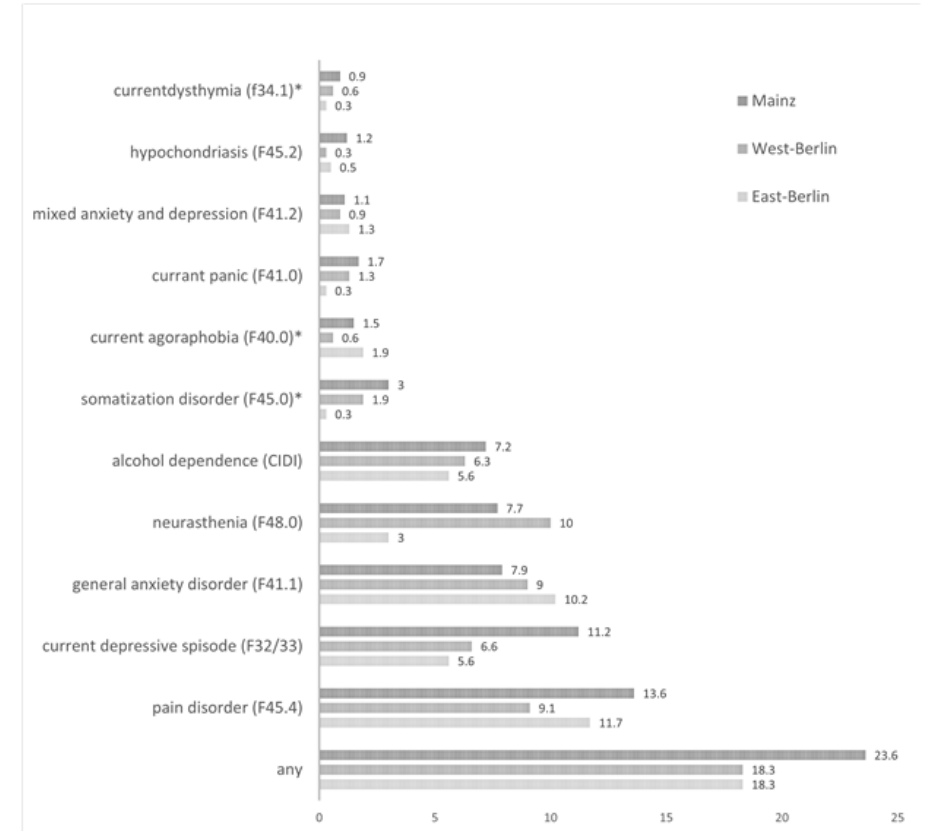


그림 4. 베를린 장벽 붕괴 1년 후 동·서독 간 정신과 질환 빈도의 차이 (M. Achberger et al. 1999)

남북한간 정신건강 문제 함의

- 통일 이행기 동독 지역 보건의료지표는 큰 악화를 보이며, 사회적 스트레스에 연관되어질 가능성이 높음
 -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격차에서 시작했음에도 독일 통일 후 동·서독 지역 간의 실질적인 건강 격차가 의미 있게 줄어드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도 함
 - 정신건강 자원에 대한 상호 격차는 심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독의 보건의료체계가 서독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스템성, 개인의 적응상 어려움이 발생.
 - 서로의 의료인 상호 자격 인정이 가능했던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통일한국 상황에서는 북한지역 의료인들에 대한 자격 논란과 이들에 대한 재교육 필요가 제기될 것이 자명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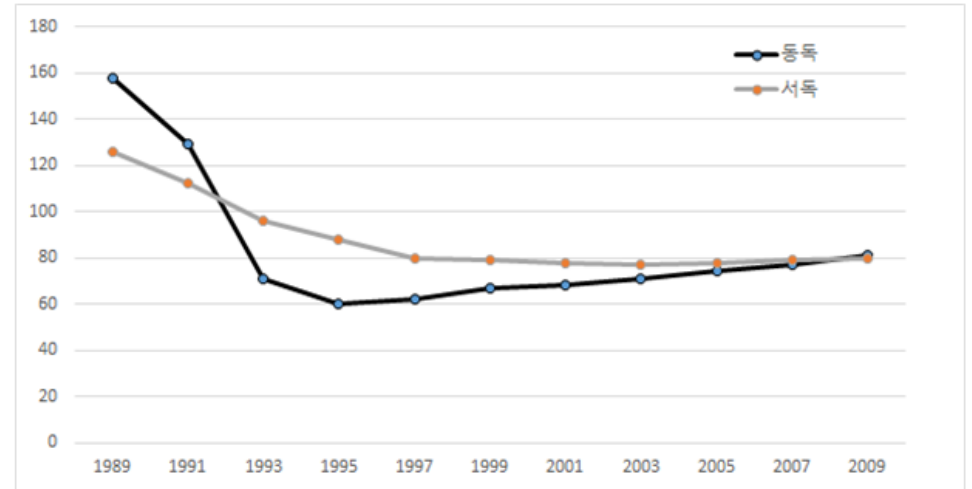


그림 8. 동독과 서독 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정신과 병상수 추이
(Mir J et al. 2013)

급격한 사회 체제 변화시의 심리사회적 문제

- 1985년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 베를린장벽 붕괴 전후로 구소련 블록의 해체
- 1989년 연말까지 모든 소련 내 공화국이 독립을 달성
- 89-91년 소련의 GNP는 20%감소, 이후 91-98년 사이 다시 40%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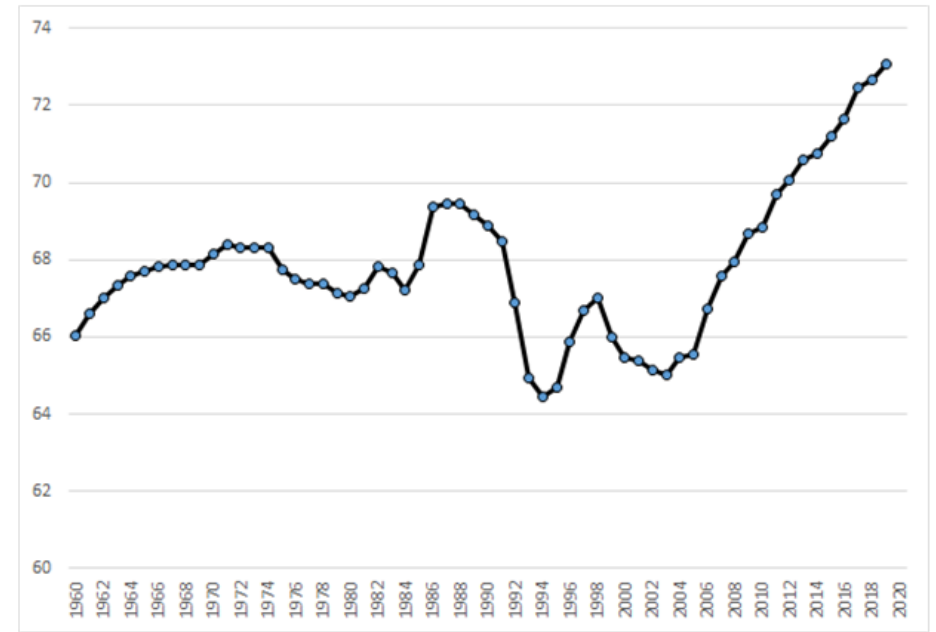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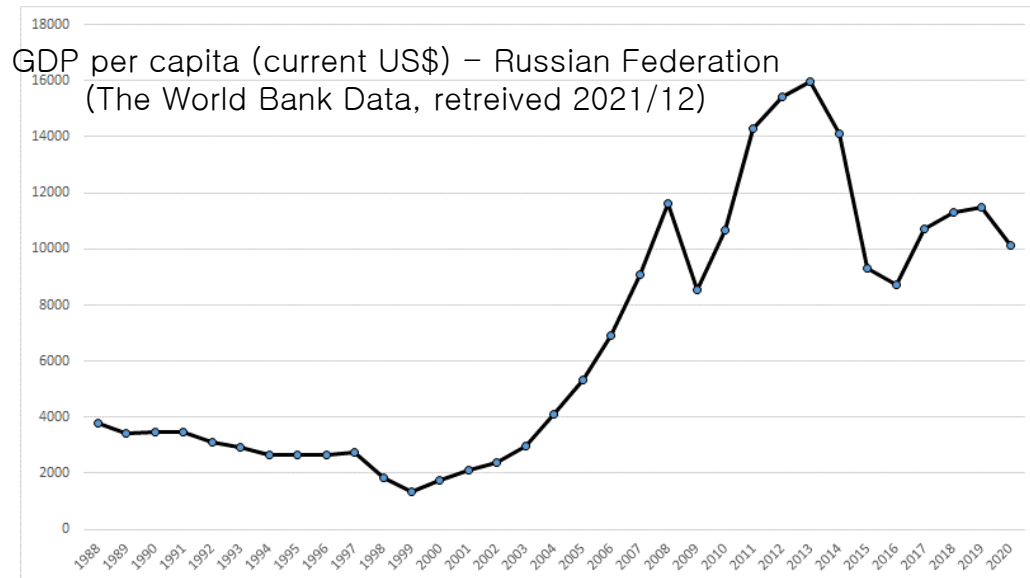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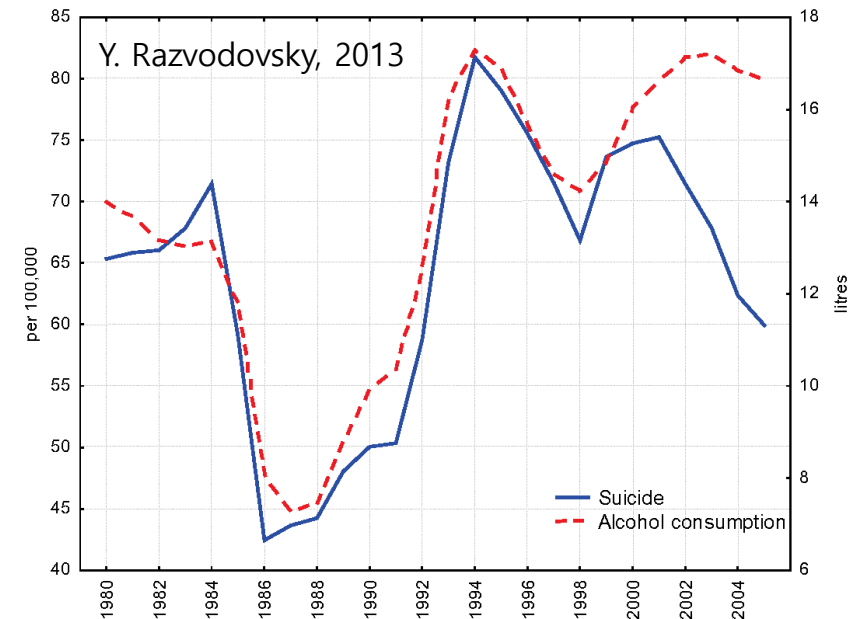


그림 13. Life Expectancy at birth, 1960–2019, Russian Federation

Figure 1. Trends in per capita alcohol consumption and suicide rates in the Russian Federation, 1980–2004



소련의 붕괴와 사회문화적 영향 (Andrei Lankov)

- 1960-80년대 소련 시민의 소비 수준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음
 - 개방이 진행되며 유럽과 미국에 비교하게 되고, 위대한 국민이 서구인 들보다 못하다는 점을 주목
 - 소련 국민들에게, 개혁과 개방은 정치적 자유보다는 슈퍼마켓과 해외여행으로 대표되는 소비 문화와의 연결
- 러시아 사람들은 구소련의 붕괴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심각한 손상으로 받아 들임
 - 국가의 위대함, 군사적 승리와 영토 확장, 국제적 영향력을 등을 자랑스러워하는 러시아의 문화적 경향
- 새로운 독립국가의 소수민족들 역시 크게 곤경 처함
 - 공산주의 붕괴 후 2년도 지나지 않은 1993년에 이미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지기 시작
 - 러시아 사람들은 1990년대를 가난, 붕괴, 도덕성 실종, 폭력, 민족 갈등의 시대로 기억함
 - 하지만 1990년대는 러시아 전체 역사에서 유일하게 자유 언론, 자유 정당, 자유 선거가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다.
 - 1990년 이후의 급격한 경제 회복은 강력한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성장의 밑거름이 됨

표 11. 소련붕괴에 대해 무엇이 제일 아쉬운가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응답

WHAT DO YOU REGRET MOST OF ALL ABOUT THE COLLAPSE OF THE USSR?	1999	2006	2007	2011	2012	2014	2016	2017	2018
통일된 경제 체계의 붕괴	60	49	49	48	49	55	53	54	52
더 이상 초강대국의 일원이 아님	29	55	44	45	51	56	43	36	36
울분과 불신의 증가	32	36	36	41	39	41	31	34	31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의 붕괴	29	35	38	34	26	29	28	26	24
어디 있던 집에 있다는 느낌	10	25	18	20	18	24	30	25	24
자유로운 휴가나 여행	10	23	21	18	19	12	15	15	13
기타	1	1	2	3	1	2	3	5	4
말하기 어렵다	7	3	2	1	1	1	2	2	2

((Lexada Center, 2018))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정신건강 지표

- CIS 국가들의 정신 건강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부족
 - 41/100,000)
 -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만이 유럽 평균보다 낮은 자살률
 - 정기적인 정신건강 현황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음. WMH에는 우크라이나만 참여
 - 구 소련 국가 내에서의 정신의학적 문제 : DALY의 2~3번째 주요 원인 (11.1년 (투르크메니스탄)~20.1년 (몰도바))
- 자살률의 추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세기 말~21세기 초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
 - 유럽 평균 : 13/100,000 (EU 10/100,000)
 - CIS 전체 : 18/100,000 ,특히 벨라루스 (남성 47/100,000, 여성 8/100,000), 카자흐스탄 (남성

표 12. 2004년 기준, CIS 국가들에서의 정신건강 문제의 Disability adjusted years of life 비중

	전체	남성		여성	
		DALY 증 비율 (%)	순위	DALY 증 비율 (%)	순위
아르메니아	17.6	14.7	2	20.7	1
아제르바이잔	16.8	14.4	2	19.4	1
벨라루스	14.7	12.4	3	17.8	2
조지아	19.3	17.6	2	21.2	2
카자흐스탄	14.6	13.0	3	16.7	2
키르기스탄	14.4	12.1	3	17.3	2
몰도바	19.6	20.1	1	19.0	2
러시아	13.7	12.0	3	16.4	2
우크라이나	13.6	11.4	3	16.5	2
우즈베키스탄	19.1	16.5	2	21.9	1
타지키스탄	14.8	13.2	3	16.7	1
투르크메니스탄	13.9	11.1	4	17.5	2

(WHO 2008, Elizabeth Brainerd, 2001에서 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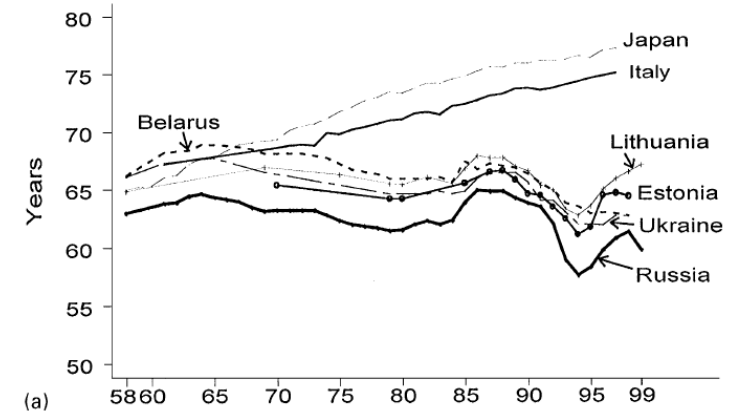
소련 붕괴 후 사망률 및 자살율 위기

- 노동연령대 남성의 사망률 74% , 남성 평균수명이 63.8세 -> 57.6세로 감소
- 사고, 타살,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은 단기적 거시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받음
- 자살 사망률은 경제적 지표에 영향을 심하게 받으며, 실제로 1990년대 러시아의 사망률 증가의 16% 이상을 설명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발트 3국에서 러시아와 비슷한 패턴의 사망 증가가 관찰됨.
- 동유럽의 국가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역시 일시적 영향은 받았으나 빠른 회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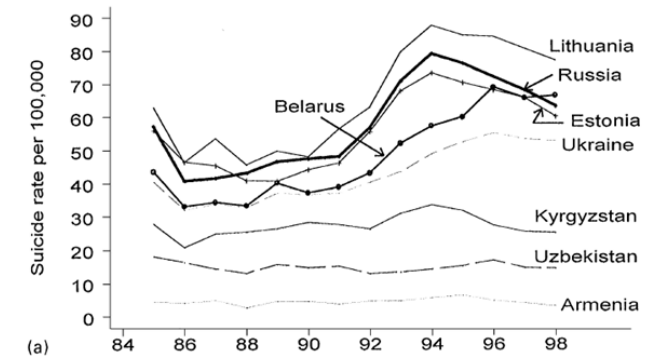
표 13. 1990-1995년 사이 구소련 지역에서의 주요 사인별 사망 증가

	사인별 사망 증가		
	순환기질환	사고와 부상 (자살포함)	자살
러시아 (전연령)	48.9%	26.0	3.5
노동연령	30.6	44.4	6.5
벨라루시 (전연령)	48.6	20.3	5.4
노동연령	25.8	55.9	16.4
우크라이나 (전연령)	71.4	16.3	2.4
노동연령	32.8	33.2	N/A
에스토니아 (전연령)	11.9	41.7	8.0
라트비아 (전연령)	42.7	27.4	6.0
리투아니아 (전연령)	23.8	37.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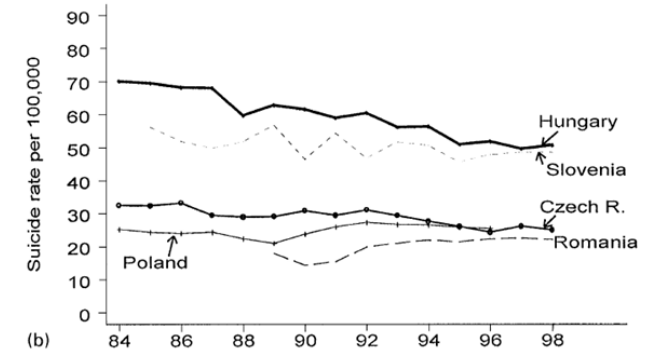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통계 연감, Brainerd E, 2001에서 재인용)



(a)



(a)



(b)

그림 17. 1984-1999년 사이 구 소련 지역 및 동부 유럽에서의 남성 사망률 변화 (Brainerd E,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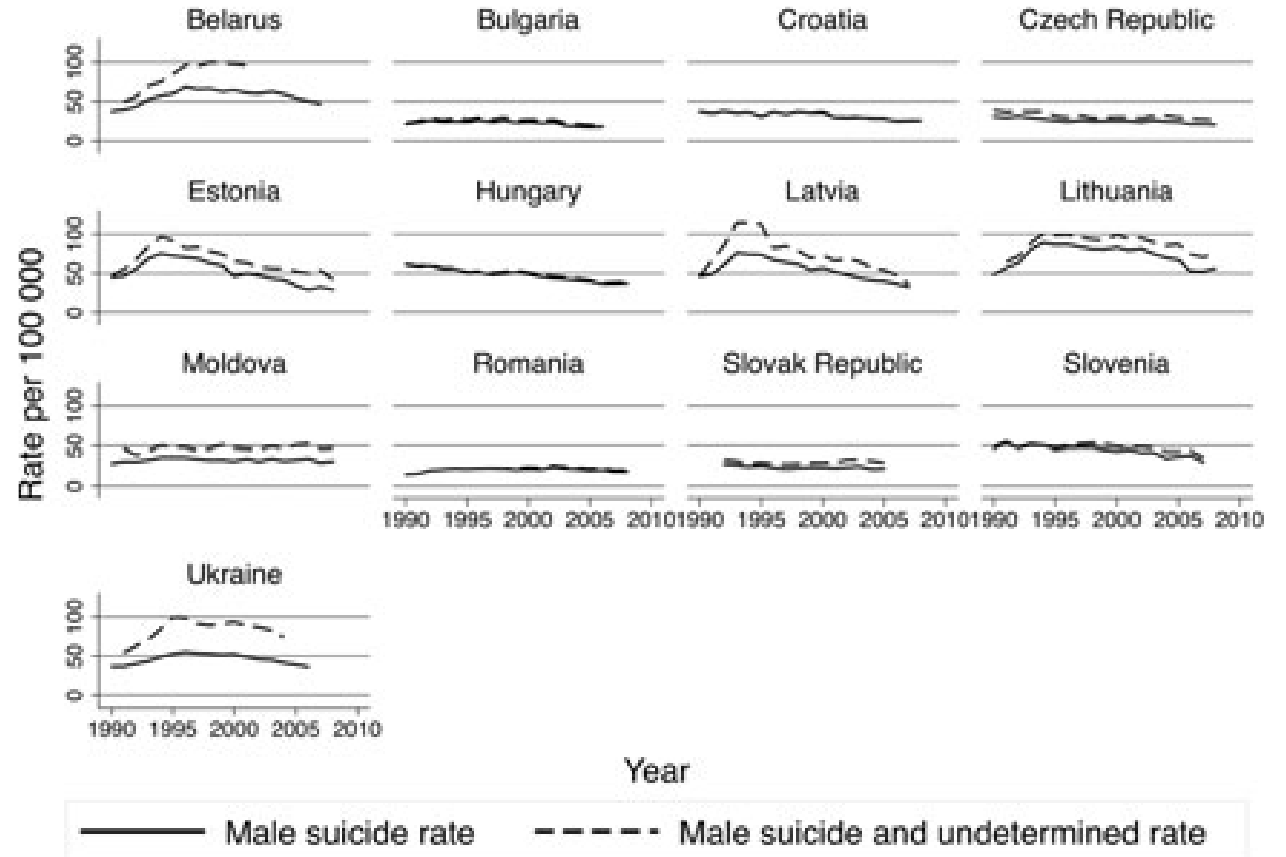
소련 붕괴 후 동유럽 지역

- 동유럽에서 공산주의는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

- 경제적 비효율 뿐 아니라, 권위적이고, 외세에 의한 체제이며 종교를 억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싫어할 수 있음

- 동유럽에서의 변화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동기

-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사고 방식은 사회적 분위기를 동유럽보다는 소련에 가깝게 형성할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함



(Kairi Kove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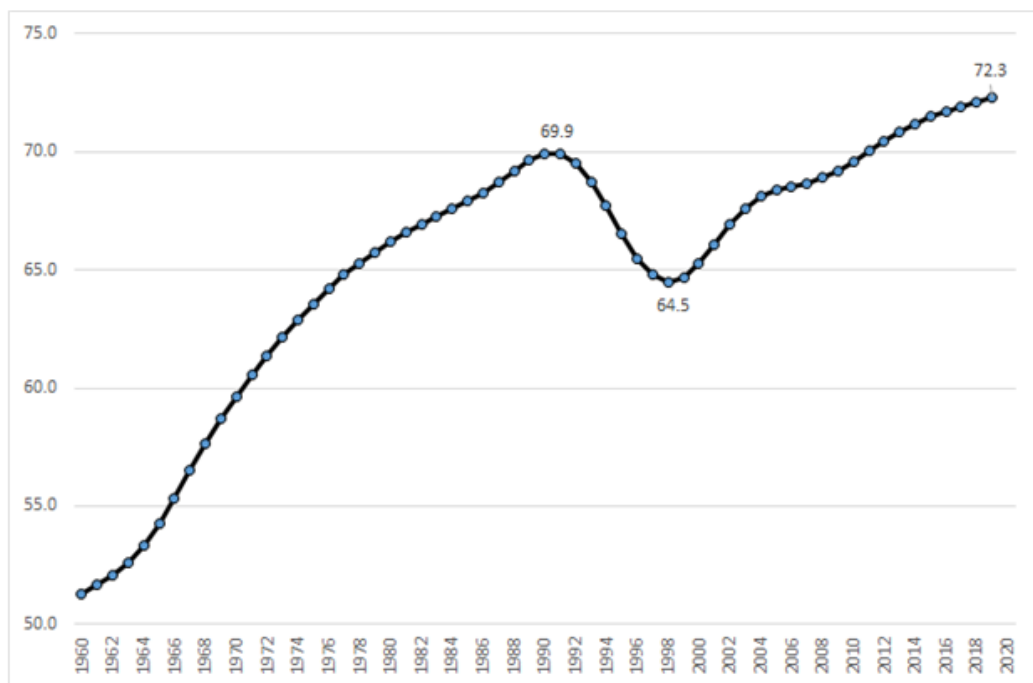


그림 25. 평균기대여명, 북한, 1960-2019.
(The World Bank, retrieved 12/0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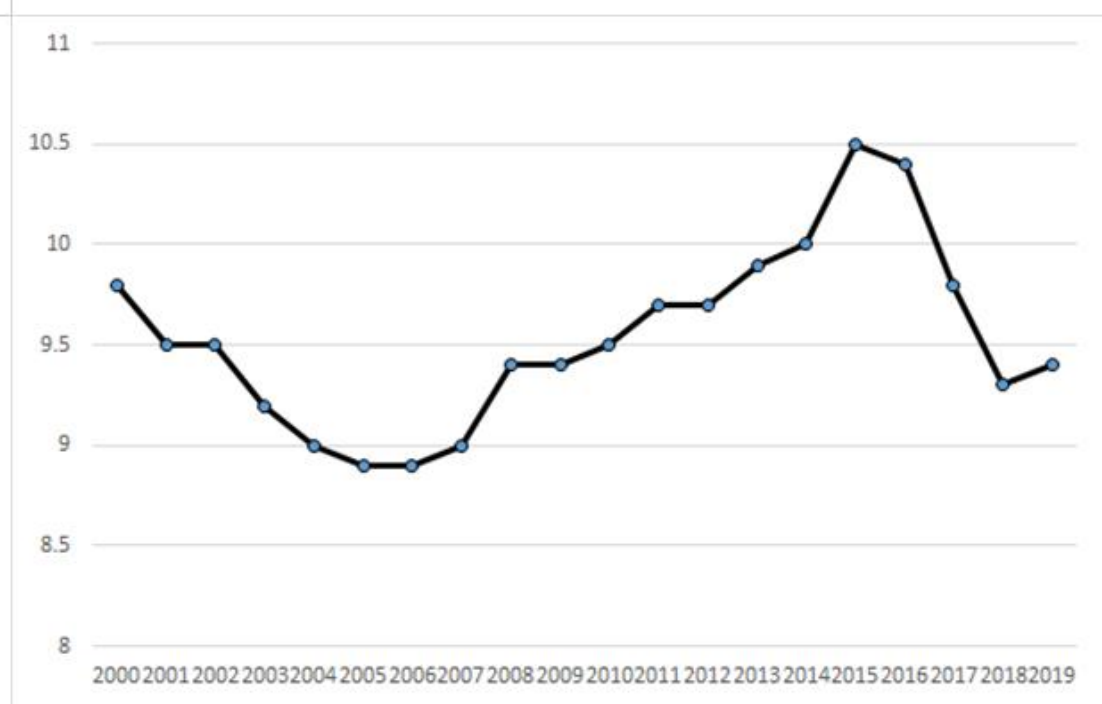


그림 26. 북한 자살률 추이. 2000-2019
(The World Bank, retrieved 12/01/2021)

북한의 평균 기대 여명과 자살률 추이

현재 북한의 정신건강 문제

- 북한의 보건학적 지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
 - 실제 수치인지, 1980년대 이전 소련에서 보고되던 통계처럼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되는 왜곡된 통계일지는 알 수 없음
 - 자살 사망률 데이터만으로는 10만 명 당 8.2~10.9 사이의 높지 않은 자살률
 - 알코올의 위험한 이용도 2016년 2.2% 로 남한의 8.4% 보다 낮은 수준
 - 탈북민과 북중 국경에서의 증언은 현재 북한에 필로폰을 포함한 불법약물 (methamphetamine) 중독이 매우 만연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필로폰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문화적 위기가 병행되지 않았던 점이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상황과 큰 차이
 -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와 내부의 정치적 안정이 정신건강상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을 가능성
 - 탈북민 사례에서 보듯, 정체성 문제가 깨진 후 오히려 정신건강상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 급격한 체제 변화가 있다면 만성적 울분 상태 뿐 아니라, 90년대 러시아 같은 극단적인 정신건강적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

탈북 의료인 시간에서 본 통일 정신건강문제

- 북한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 탈북 의료인들 경험으로도 우울증, 조증 등의 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적 갈등에 의한 신체화 증상도 인지
 - 대개 정신증의 경우 강제입원을 통해서 입원 치료를 진행 (북한에서는 정신과 자체를 49호로 지칭)
 - 불안, 우울 같은 신경증은 내과에서 심장 관련 질환으로 보며, 이에 동반된 신체증상을 치료하며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음.
 - 중독은 인지는 되나 병이라기 보다는 ‘골칫거리, 술주정뱅이’라는 정도의 인식만 존재
- 전체적으로 남한만큼 정신적 문제, 불안 등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다는 탈북 의료인 들의 인상.
 -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되다 보니, 탈북 의료인들은 그런 문제들을 발전된 사회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
 - 자살은 북한에서 실제로 적을 가능성이 높음. 북한에서 내 몸은 국가의 것으로 자살은 민족 반역에 해당.
 - 죽은 사람의 주변 친족은 민족반역자로 보아 취직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증
- 탈북 의료진은 남한사회에서 정신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발전된 생활에 수반된 사회현상이라고 인식
 - 통일 이후에는 북한 탈북자들에서 보듯이 자살이나 정신과 문제가 모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북한에서는 대충 살수도 있다.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하지만 남한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 본인 노력이 필요한 점, 이런 점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들은 예측

보건적 측면에서 본 통일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문제

- 현재 북한 사회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신적 질환이 내과적 질환의 일부로 치료되고 있거나, 무시당하는 경향
 - 심리적 왜곡은 외부인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집단적 콤플렉스로 나타나거나, 개인 성격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남-북 주민 간 의사소통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음
 - 심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은 신체화 경향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화를 초래
-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경우 여타 보건학적 지표들보다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름
 - 동·서독은 현재의 남·북한 정도로 정신건강의 시각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동독의 정신의료 체계는 서독의 지역사회 개혁 이전 단계이긴 하나 공적 정신건강 시스템이 부재했던 건 것은 아님
 - 북한의 의료 체계 자체가 서구와는 다르며, 정신건강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
- 몇 가지 측면의 기회
 - 제로 베이스여서 북한은 처음부터 지역사회화 된 정신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음
 - 북한은 정신건강의학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 하지 않은 (사실은 아예 무관심 했던) 점

사회적 측면에서 본 통일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문제

- 장기적인 신뢰 구축의 과정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 사회를 구성했던 세대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아짐
 - 남북의 경제 규모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은 상존할 수 밖에 없으며, 동·서독 문제 이상일 가능성이 높음.
 - 독일 사례에서 보듯 통일 이후에 나타난 불평등의 문제는 양 지역 주민 모두의 정신건강 문제에 악영향이 예상됨
-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에 반작용
 - 집단적 트라우마 반응, 복고주의나 정치적 극단주의……
 - 문화적 부적응, 실업, 이주의 문제 등은 현재로 만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코올과 마약 문제와 결합할 가능성
 - 사회 통합과정에서, 북한 주민 들이 겪을 정체성의 혼란은 동독 등 동유럽 보다도 러시아에서 겪었던 상황에 가까울 가능성 : 북한 사회가 대외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주체 강국으로서의 자존심 조차 남지 않게 될 상황이 오는 경우?
- 남한 사회 내에서의 문제
 - 언론이나 SNS에서 관찰되는 남한의 사회적 정서는 높은 수준의 울분과 분노라는 인상
 - 이미 과포화된 남한 내부의 갈등에 이질적인 인구 집단 문제가 끼어들어올 때?
 - 난민, 외국인 등에 대한 남한 내부에서의 반응……

정신건강 관련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 북한 사회 내 정신건강의 이해도 증진과 스티그마 해소
 - 북한 사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의료체계 내에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황상 자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스티그마는 남한에서보다 월등할 것
 - 정신질환 자체를 신체화하여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개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관통
 - 남한과 북한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작업이 요청됨.
- 핵심 공동 연구 분야
 - 남북 공동 정신건강진단기준체계 구축 : 남북한 의료진간 공동 의사소통 도구가 필요
 - 북한 의료진을 위한 정신의학 매뉴얼과 교과서 구축 : 북한 의료진과 공동으로 정신질환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 정신의학교과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북한 대중을 위한 정신건강 이해도 증진과 스티그마 해소 전략 연구 :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는 체계에서, 정신건강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방향의 첫 단추

- WHO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재정 및 기술 수준을 감안한,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의 개발 필요 (WHO collaboration center 등의 설치)
- 남한의 1980년대 이후 정신건강 개혁 과정에 대한 벤치 마킹을 통해 남북간 상호 호환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구축

북한 정신건강 정책 지원



- 북한법 체계 내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권 및 정신건강관련 법률 제정 부분 연구
- 정신건강 정책 및 실행계획 구축 연구

법과 거버넌스 연구



- 국내 정신건강실태조사, World mental health survey 등과 호환될 수 있는 형태 (CIDI 활용)의 정신질환 역학 조사 준비
- 남북간 언어 및 의료 용어 차이를 감안한 CIDI 수정을 준비요

북한 전국 단위 역학 조사



- 정신과 치료자원, 기타 심리상담 자원, 영양 및 재활시설의 존재 유무 등
- 북한 내 정신건강 전문가 자격 제도, 정신건강 약물 가용도 조사

북한 내 정신건강 자원 조사



- 북한형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
- 북한형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원 모델 개발

북한 지역 정신건강 체계 연구



정신건강 정책 연구

개별적 질환 관련 연구

- 문화적 신드롬 : 한국형 울분장애와 화병
 - 독일 통일 이후의 경험으로 유추했을 때 통일 이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상 뿐 아니라, 이미 현대 남한 사회에서의 울분과 분노의 문제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황
 - 울분 감정에 대한 시민 사회 용 정신건강 교육 자료 개발
 - 한국형 외상후 울분장애 (PTED) 관련 진단 기준 정교화
 - 한국형 외상후 울분장애의 약물/ 비약물치료 가이드라인 및 치료 모듈 개발
- 북한 내 알코올과 물질사용 관련 문제
 - 실질적인 약물 문제의 규모, 사회적 개인적 대처 전략에 대한 연구 등
- 신체화 장애
 - 과거의 남한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광범위한 신체화 증상이 북한 시민사회 내에 만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북한 정신 건강 체계에서 정신 건강 문제가 내과적 문제로 해석되는 것 부터가 이런 신체화 경향을 상징
 - 감추어져 있는 우울, 불안장애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결과이며, 울분 등의 증상과도 연관될 수 있음

급격한 사회 통합 혹은 변화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

- 큰 사회 변화 안에서의 개인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사회 문화 현상, 여론, 대중의 감수성 등과 개인 차원에서의 심리적 현상을 연결할 연구 방법론이 필요
- 감정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규범적 감정체계를 가지게 됨.
 - 개인의 고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측면이 존재함
 - 엄격한 감정체계일 수록 제한된 수의 감정을 모델로 제시하고, 사람들은 규범적인 반응을 하도록 요구 됨
 -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단적압력, 감정적 고통이 주어질 수 있음
- 예. 17세기 프랑스의 규범화된 감정문화 (예절, 명예)의 반동으로의 낭만주의의 태동. -> 인본주의적 감수성의 확대와 프랑스 혁명 -> 감정적의 무절제한 표현과 공포정치로의 이행 (윌리엄 레디)

- 감정은 상황에 대한 지각에서 발생하고, 신체의 느낌을 변화시키며, 그 지각과 느낌은 문화적 코드에 의해 의미가 부여됨 (Ute Frevert)
 - 1) 모든 문화는 감정을 다르게 보고 평가하며,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함
(예를 들어 어떤 문화는 두려움을 허용하지 않고, 어떤 문화는 슬픔을 허용하지 않음)
 - 2) 감정을 형성해내는 사회적 모델 안에서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며 동시에 모델을 변화시키기도 함.
 - 3) 감정 학습 : 모방, 반성 등을 통한 다차원적 학습 과정에서 감정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양방향성임. 느낌은 신체로 표현되고, 어떤 감정의 표현은 다시 감각에 영향을 미치게 됨 (예: 곡하는 여성 (Klageweiber))

20세기 독일을 관통하는 감정 키워드

표 20. 20세기 독일을 설명하는 감정 키워드 (Ute Erevort)

- 공포(Angst/Fear)
- 열광(Begeisterung/Enthusiasm)
- 혐오(Ekel/Disgust)
- 공감(Empathie/Empathy)
- 격분(Empoerung/Indignation)
- 안온함(Geborgenheit/Belonging)
- 증오(Hass/Hatred),
- 희망(Hoffnung/Hope)
- 사랑(Liebe/Love),
- 질투(Neid/Envy)
- 호기심(Neugier/Curiosity)
- 향수(Nostalgie/Nostalgia)
- 원한(Ressentiment/Resentment)
- 부끄러움(Scham/Shame)
- 연대(Solidaritaet/Solidarity)
- 자부심(Stolz/Pride)
- 애도(Trauer/Grief)
- 신뢰(Vertrauen/Trust)
- 분노(Wut/rage)
- 호감(Zuneigung/Affection)
- 기쁨(Freude)
- 명예(Ehre)
- 치욕(Demut)



그림 22. 통일 시점에서의 동독인들의 주된 감정

키워드 수집

- 연구팀은 통일, 북한, 남북, 남북관계, 한반도, 김정은, 미사일, 북한 핵, 분단, 도발, 한반도, 단일민족, 대북정책, 평화프로세스, 노스코리아 등 15개 키워드를 선정
 - 3개년의 수집기간 각각에서 일정 수집량(100,000 문장)을 충족한 키워드는 통일, 북한, 남북, 김정은, 미사일 총 5개였다.
- 조사된 인터넷 자원
 - 언론사 수집 :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등 일간지를 비롯한 50여 언론사와 네이버 뉴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SNS 채널
 - 레몬테라스, 디젤매니아 등 포털 내 개설되어 있는 커뮤니티, 블라인드, 엠팩, 클리앙 등 오픈커뮤니티
- 추가 학습 단계에서 수집 후 정제를 거친 문장을 사용

수집 구분	대상기간
S1 : 화해 무드의 점진적 붕괴	2019. 7. 1 ~ 2020. 6. 30
S2 : 명시적 관계 냉각 시작	2020. 7. 1 ~ 2021. 6. 30
S3 : 갈등의 심화	2021. 7. 1 ~ 2022. 6. 30

- 2018.4.20. 핵실험중단선언.
- 2018.4.27. 남북정상회담
- 2018.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
- 2019.2.27 북미 하노이 회담
- 2019.6.30 남북미정상회담
- 2019.10.2 SLBM 시험발사
- 2020년 연초부터 북한쪽 어휘가 냉각되는게 본격화
- 2020.6.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2020.6.17 9.19 군사합의파기
- 2020.9.21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 2021 년은 지속적인 대남비난과 미사일 도발이 있으나 코로나 등 관련인지 극적인 이벤트는 없음
- 2022 이후 지속적 냉각이 심화

키워드 수집

- KoBERT로 분류한 긍정과 부정 군집에서 상세수치를 추출하기 위해 적용한 감정사전은 2018년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 Data Intelligence Lab에서 공개한 자료를 사용
- 총 14,843개의 1-gram, 2-gram, 관용구, 문형, 축약어, 이모티콘 등에 대한 긍정, 중립, 부정 판별 및 정도(degree)값이 사용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glosses) 분석을 통한 긍부정 추출
 - 2) 김은영(2004)의 긍부정어 목록
 - 3) SentiWordNet 및 SenticNet-5.0에서 주로 사용되는 긍부정어 번역
 - 4)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축약어 및 긍부정 이모티콘 목록

	통일	북한	남북	김정은	미사일
S1	603,180	700,243	142,569	174,025	112,552
S2	336,342	759,224	651,443	182,290	249,242
S3	1,108,125	1,838,355	693,407	411,328	1,063,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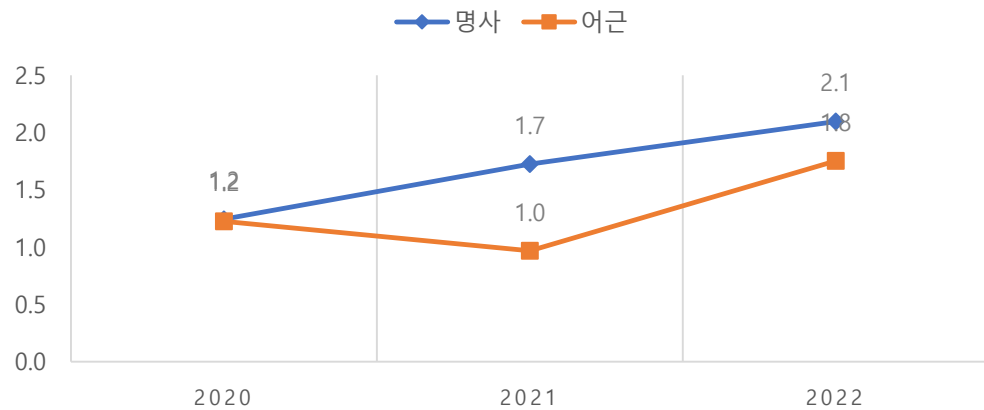
통일 관련 키워드에 대한 감정반응

		긍정방향	부정방향	부정:긍정 비율
2020	명사	869,746	1,121,816	1.3
	어근	15,091	11,638	0.8
2021	명사	408,507	500,292	1.2
	어근	11,257	8,700	0.8
2022	명사	192,244	1,122,503	5.8
	어근	3,818	11,63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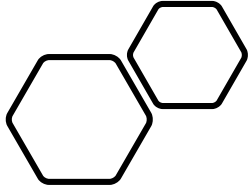
2020-2022년 3년 연속 "통일" 관련 공통되게 도출되는 감정어 어근

긍정적 연관	부정적 연관
비롯, 풍부, 활발, 긴밀	확실, 비롯, 궁금, 저렴, 답답, 죄송, 간단, 불가피, 어색, 타당, 활발, 극심, 적합, 익숙, 깨끗, 맞이, 적당, 엄격, 예민

"통일" 에 대한 긍정반응에 대한 부정반응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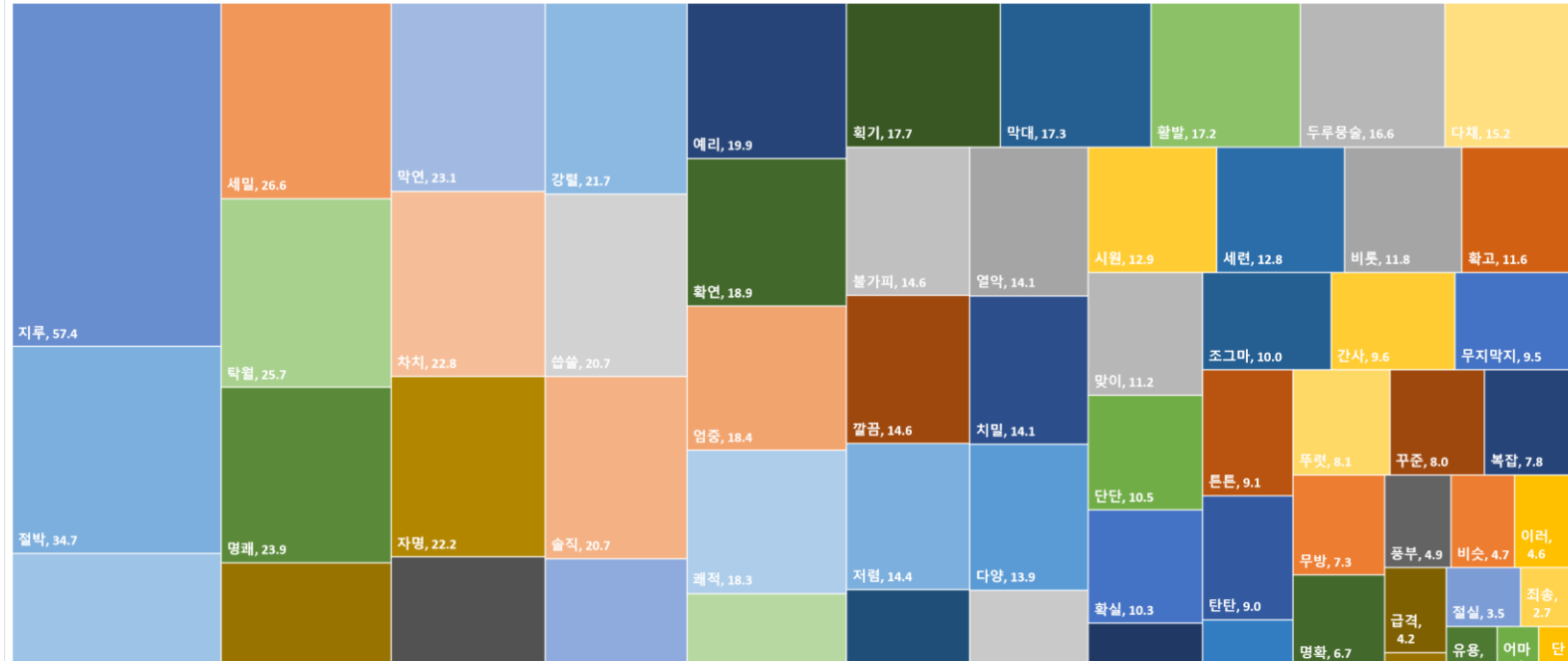
통일관련 언급되는 감정어 빈도 상위 10위 (2020)			
긍정방향		부정방향	
단어	C/M	단어	C/M
다양	32.7	확실	21.4
비슷	19.9	비롯	20.7
비롯	19.8	궁금	19.1
이러	18.7	다양	19.0
확실	14.5	당연	18.7
어마어마	12.4	저렴	17.4
막대	9.0	시급	13.1
동일	8.7	유명	11.0
깔끔	7.9	명칭	10.4
풍부	7.9	한심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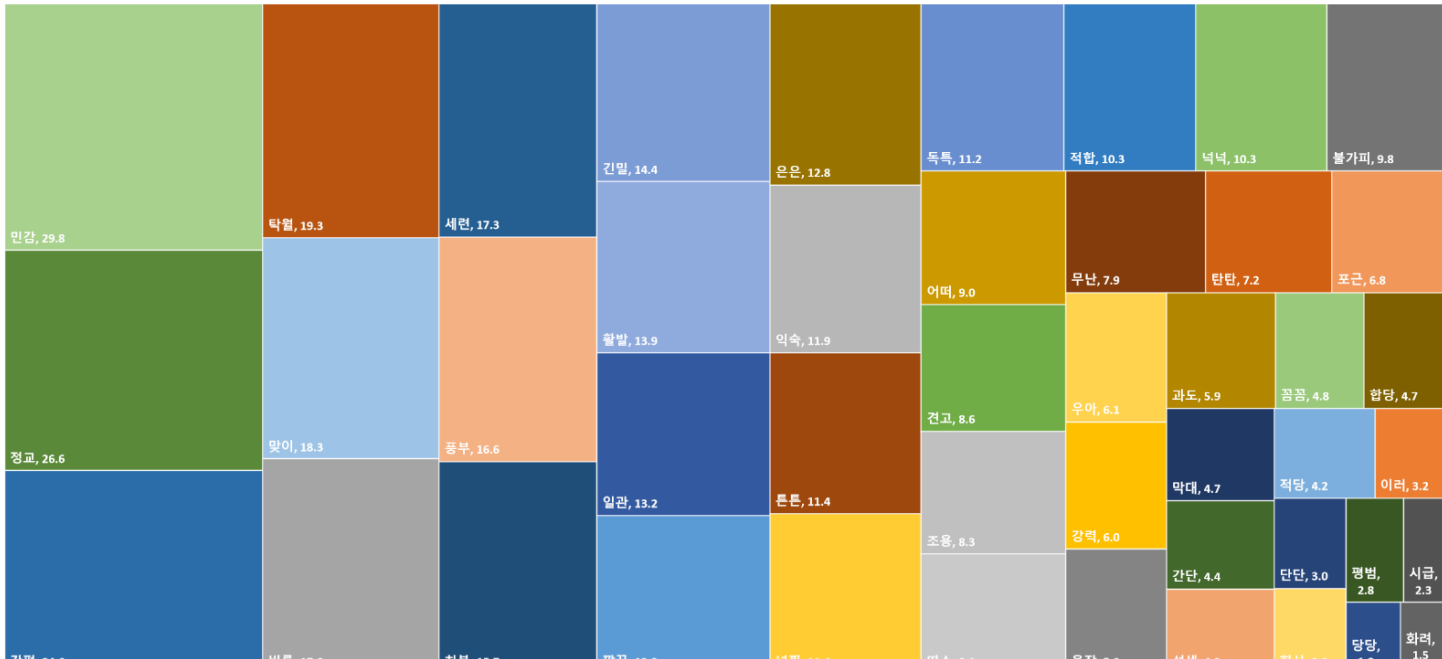
통일 관련 키워드에 대한 감정 반응 (2020)

통일관련 언급되는 감정 어 빈도 상위 10위 (2020)			
긍정방향		부정방향	
단어	C/M	단어	C/M
다양	32.7	확실	21.4
비슷	19.9	비롯	20.7
비롯	19.8	궁금	19.1
이러	18.7	다양	19.0
확실	14.5	당연	18.7
어마어마	12.4	저렴	17.4
막대	9.0	시급	13.1
동일	8.7	유명	11.0
갈끔	7.9	명칭	10.4
풍부	7.9	한심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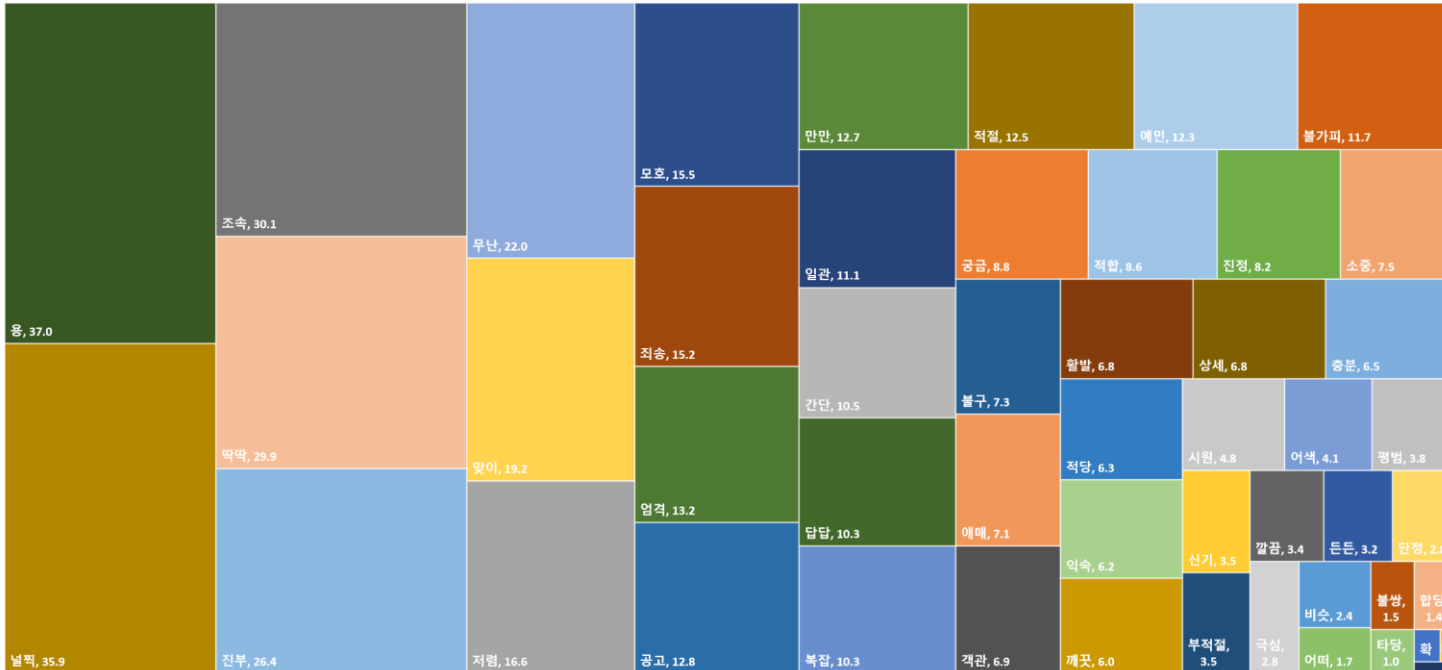
통일에 긍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0, 기준값에 대한 %)



"통일"에 긍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1, 기준값에 대한 %)



"통일"에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1, 기준값에 대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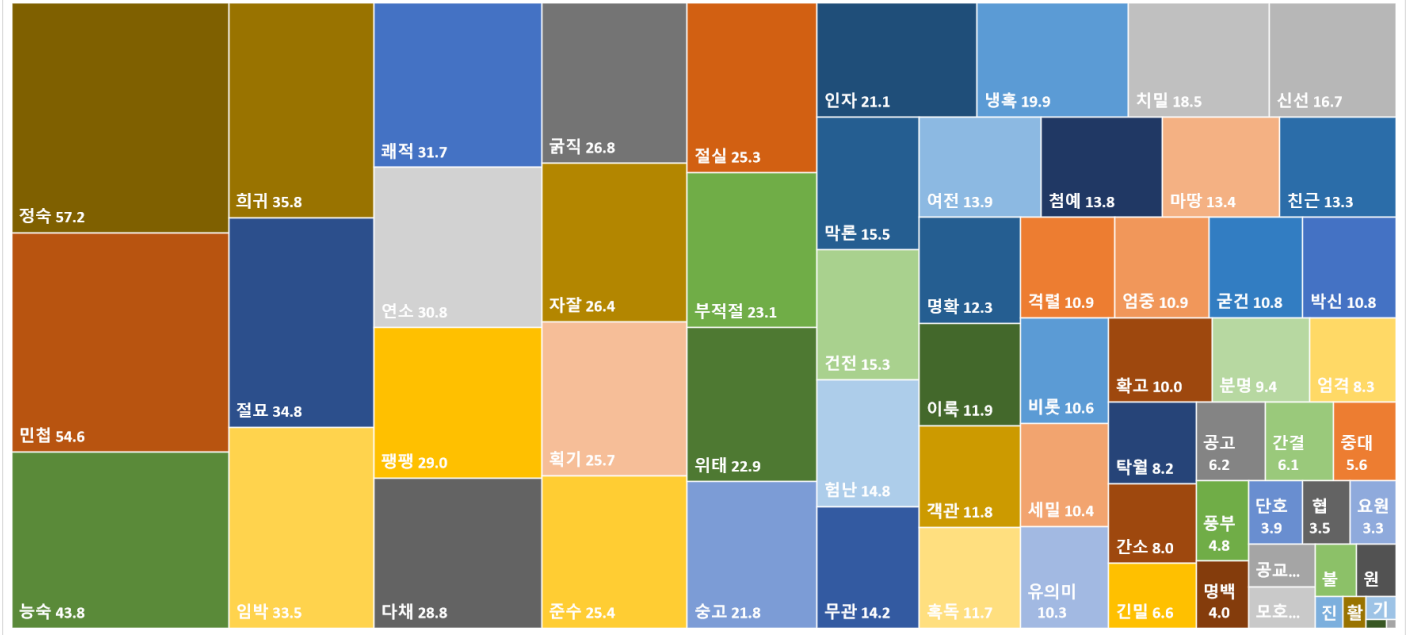
통일 관련 키워드 에 대한 감정 반응 (2021)

통일관련 언급되는 감정어 빈도 상위 10위 (2022)			
긍정방향		부정방향	
단어	C/M	단어	C/M
깔끔	13.7	비슷	13.4
이러	11.1	궁금	13.1
비롯	7.4	저렴	10.7
강력	5.5	비롯	7.2
자세	5.3	확실	7.0
견고	4.3	진정	4.2
세련	3.5	불구	4.2
튼튼	3.2	죄송	4.1
화려	3.0	깔끔	4.0
은은	2.8	적절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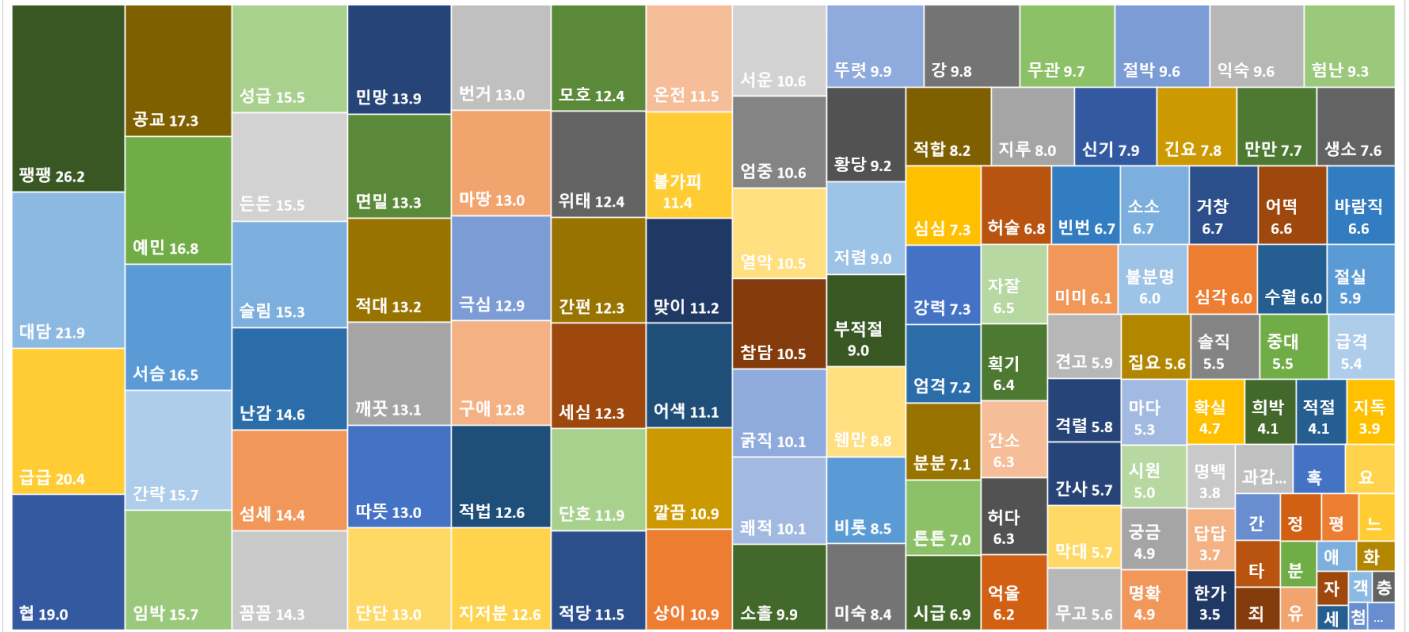
통일 관련 키워드에 대한 감정 반응 (2020)

통일관련 언급되는 감정어 빈도 상위 10위 (2022)			
긍정방향		부정방향	
단어	C/M	단어	C/M
비롯	37.96	비롯	37.1
중대	11.12	심각	28.0
일관	10.23	궁금	21.0
긴밀	8.88	확실	19.5
쾌적	8.38	강력	19.4
풍부	7.77	중대	16.5
명확	7.12	복잡	13.9
확고	7.12	적절	12.4
다채	6.62	자세	12.0
활발	6.46	충분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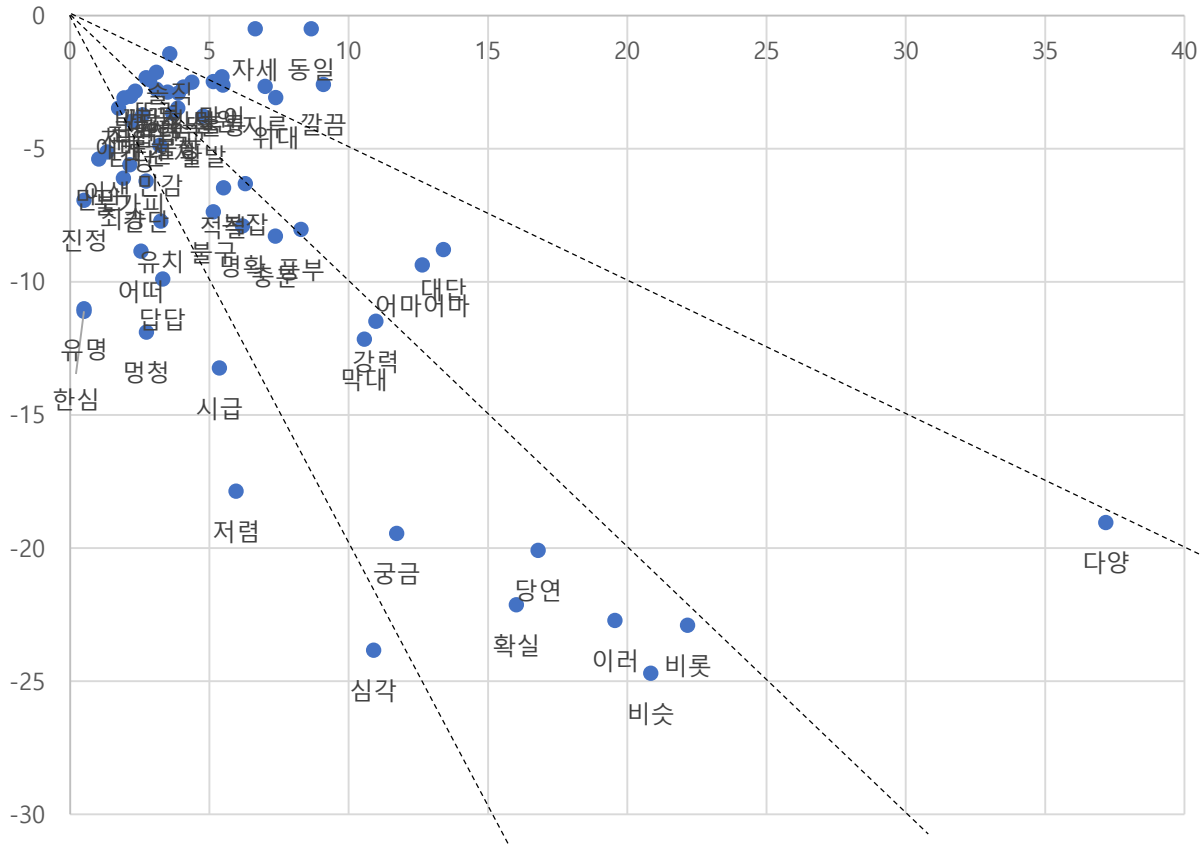
"통일"에 긍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2, 기준값에 대한 %)



"통일"에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2, 기준값에 대한 %)



‘통일’ 관련 감정어 분석/어근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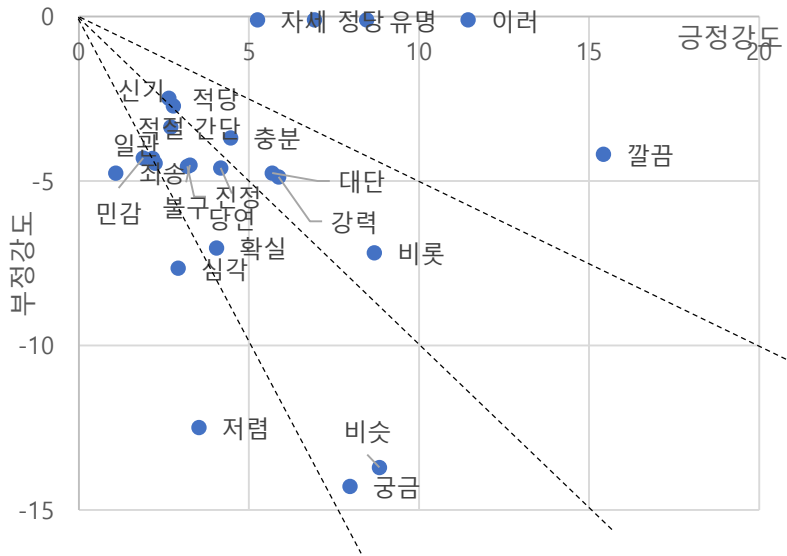
- 2020. 통일에 대한 양가적 감정어 : (일반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강도는 비례)
 - 통일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긍, 부정 강도가 다 높으나, 긍정적 뉘앙스가 우세 (37.2,-19.0)
 - 통일에 대해 양가적인 단어들이 높은 감정값을 보임. 비롯한(22.2,-22.9), 비슷한(20.8,-24.7), 이러한(19.6,-22.7), 당연한(16.8,-20.8), 확실한(16.0,-20.1) 등의 감정어
 - 강력-막대-대단-어머머 등이 강도는 약하나 양가적 감정을 보임
 - 통일은 부정적 뉘앙스로 심각(10.9,-23.8)하고 저렴(6.0,-17.9)함.
 - 그 외 통일에 대해 부정의미로만 나타나는 감정어로 시급,명칭,답답함 등이 있음

감정어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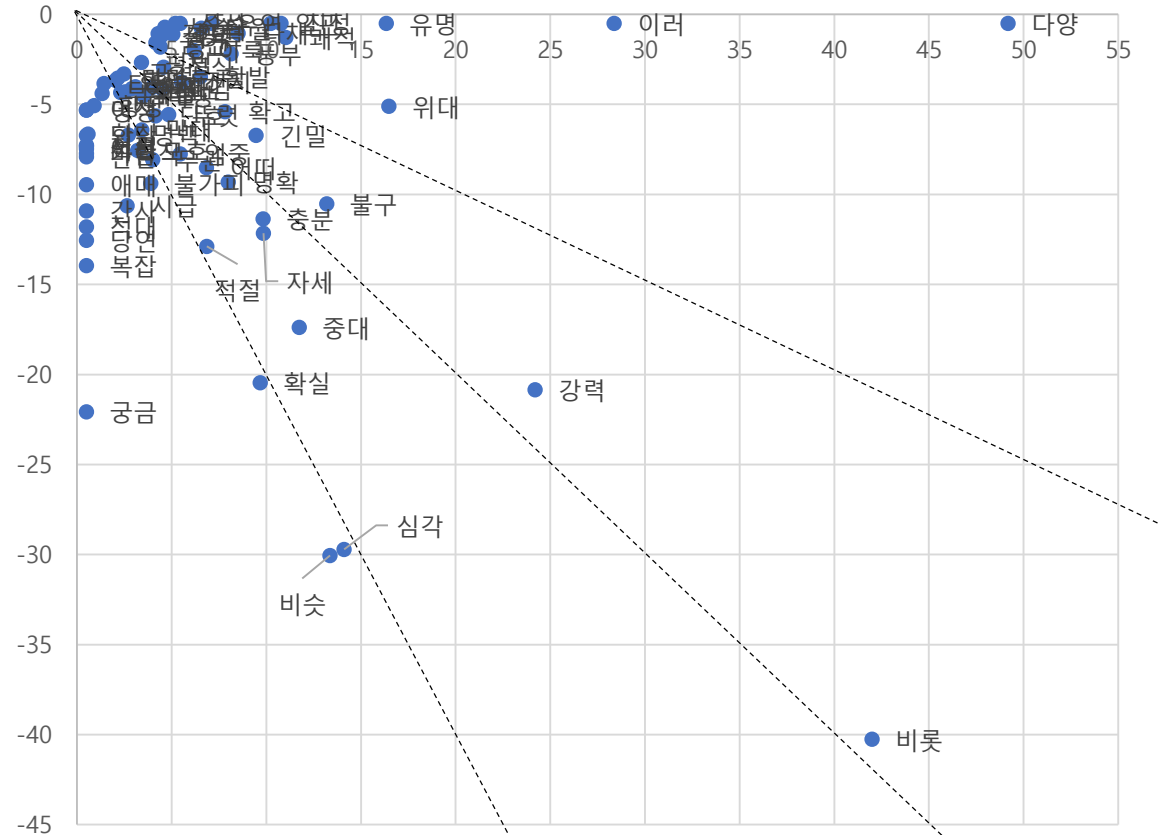
- 긍정 맥락에서 수집된 어근 264, 부정 맥락 어근 274개
- 감정강도가 평균 이상, 출현빈도가 median 이상인 단어 중 유의미한 강도로 판단되는 어근 상의 59개
- X축 : 해당 어근이 긍정적 맥락으로 쓰인 경우의 감정강도
*출현빈도
- Y축 : 해당 어근이 부정적 맥락으로 쓰인 경우의 감정강도
*출현빈도

‘통일’ 관련 감정어 분석/어근

- 2021. 긍부정 모두에서 전반적인 감정적 표현의 감소
 - 좋든 나쁘던 통일 관련 비슷하고, 궁금하며, 통일 관련 이슈 탓을 하게 되는? 감정 (비롯)
 - 양가적이긴 하나 부정적 뉘앙스로, 통일 관련으로는 비슷 (8.8,-13.7)하고, 궁금 (8.0,-14.3)하긴 함.
 - 하지만 통일은 뭔가 저렴하고 심각한 사태라는 부정적 인상. 강도는 인상
 - 양극단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



- 2022. 긍부정이 모두 강렬하게 나타남
 - 좋든 나쁘던 통일에 비롯(42.0,-42.2)된 문제들, 강력한 일(24.2,-20.8)이라는 양가적 감정이 두드러짐
 - 긍정적으로 통일은 다양하고? 뭔가 위대한 일
 - 통일은 비슷한 상황이고(13.4,-30.0), 심각한 일 (14.1,-29.7). 통일에 대한 궁금, 복잡, 당연 등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나타남



‘통일’ 관련 감정어 시계열 분석 (2020-2022)

	2020	2021	2021	2020	2021	2021	2021	2021	2020	2021	20→21	20→21	20→21	20→21
	긍정(X)	긍정(X)	언급량(Z)	부정(Y)	부정(Y)	언급량(Z)	긍정총량	부정총량	금부정격차	금부정격차	긍정증감	부정증감	X값	Y값
심각	0.94522	0.804684	3.625	0.96643275	-0.96067287	7.958333333	2.916978273	97.645354922	-0.02121	-0.1559892	감소	감소	-0.14054	0.00576
충분	0.993013	0.9911	4.5	-0.9310648	-1.0650719	3.458333333	4.459951403	73.683373719	-0.061948	-0.0739716	감소	증가	-0.00191	-0.13401
똑똑	0.796343	0.86121	1.375	-0.8539371	-0.87964537	0.791666666	1.184163333	30.696385915	-0.05759	-0.0184357	증가	증가	0.064867	-0.02571
궁금	0.962986	0.942698	8.458333	1.01759817	-1.08798741	13.125	7.97358903	914.27983471	-0.05461	-0.1452971	감소	증가	-0.0203	-0.07039
비슷	1.047393	0.886924	9.958333	0.93510452	-1.02449111	13.375	8.832284004	-13.7025686	0.112288	-0.1375672	감소	증가	-0.16047	-0.08939
열악	1.14112	1.070999	0.458333	0.97424381	-0.99977954	0.541666666	0.490874387	70.541547251	-0.166876	0.0712191	감소	증가	-0.07012	-0.02554
명칭	1.219022	0.703064	0.583333	1.14551023	-0.87465964	1.916666666	0.410120397	11.676430967	-0.073512	-0.1715961	감소	감소	-0.51596	0.270851
확실	1.103228	0.916305	4.416667	1.03314355	-1.00433019	7	4.04701385	27.030311355	-0.070084	-0.0880252	감소	감소	-0.18692	0.028813
꿈꿈	0.741471	1.048056	1.083333	0.64003242	-1.12129043	0.958333333	1.135394403	91.074569993	-0.101438	-0.0732341	증가	증가	0.306586	-0.48126
희박	0.788266	0.803784	0.458333	0.83938736	-0.93339444	0.458333333	0.368401023	50.427805786	-0.05112	-0.1296104	증가	증가	0.015518	-0.09401
단호	1.017116	0.966525	0.5	0.95724962	-1.00214894	1.333333333	0.483262293	51.336198584	-0.059866	-0.0356243	감소	증가	-0.05059	-0.0449
당당	0.931873	1.018456	1	-0.8610753	-0.7854039	1.125	1.018456285	-0.88357936	0.070797	0.2330524	증가	감소	0.086584	0.075671
어떠	0.879078	1.090254	1.958333	1.06043442	-1.01709851	2.416666666	2.135080037	22.457988055	-0.18136	0.0731551	증가	감소	0.211176	0.043336
비롯	1.11789	1.17767	7.375	1.10475723	-1.00216535	7.166666666	8.685314877	87.182184995	-0.013133	0.1755044	증가	감소	0.05978	0.102592
당연	0.994033	0.799618	5.208333	1.07232877	-0.904799	5.083333333	4.16467633	4.599394935	-0.0783	-0.1051812	감소	감소	-0.19441	0.16753
대단	0.949722	0.779566	7.291667	0.99149015	-0.87125678	5.458333333	5.684338473	44.755609915	-0.04177	-0.0916904	감소	감소	-0.17016	0.120233
절실	1.034722	0.927496	0.791667	0.79722069	-1.14629427	0.625	0.73426730	20.716433921	-0.237502	-0.2187987	감소	증가	-0.10723	-0.34907
익숙	0.993528	1.118887	2.333333	1.06743048	-1.06155057	1.5	2.61073523	11.592325858	-0.0739	0.0573359	증가	감소	0.125358	0.00588
강력	0.961144	1.060044	5.541667	0.99648897	-0.91413523	5.333333333	5.874408973	74.875387897	-0.03534	0.1459084	증가	감소	0.0989	0.082354
애매	1.004388	0.64955	1.166667	-0.7258916	-1.07102487	3.291666666	0.757807877	83.525456847	-0.278497	-0.4214753	감소	증가	-0.35484	-0.34513

2020->2021년

- 상위 어근의 감정 값은 둔화된 모습
- 하지만 상위 어근에서 전체 어근으로 넓히면, 전체적으로 ‘통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금부정 모두 증가하는 양상
- 변화가 큰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면, 통일에 대해 애매해 불편하고, 절실한 느낌이 피곤하며, 확실한, 혹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선호가 떨어짐을 시사

2021->2022

- 상위 어근 감정값 다시 증가
- 전체적으로 긍정은 감소하고 부정은 증가
- 변화 폭이 큰 어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통일에 대해 화려하고 당당하는 감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통일 문제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반응이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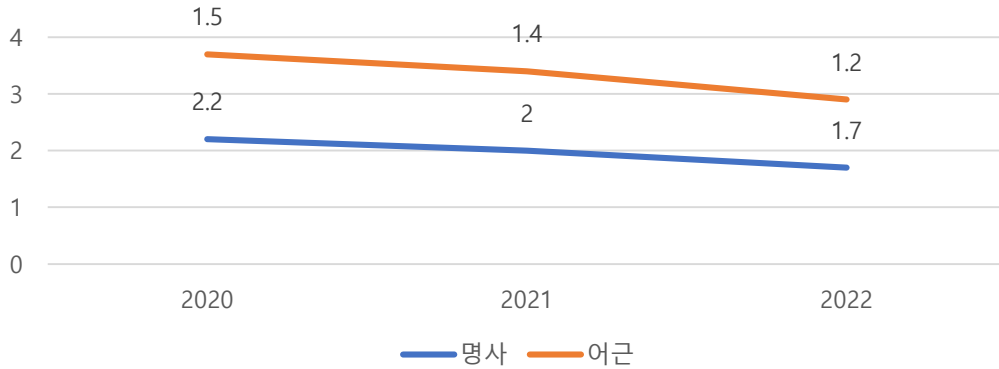
‘북한’ 관련 키워드에 대한 감정반응

(언급량)		긍정방향	부정방향	부정:긍정 비율
2020	명사	911,836	2,037,602	2.2
	어근	23,406	35,486	1.5
2021	명사	544,552	1,103,482	2.0
	어근	13,984	19,638	1.4
2022	명사	3,804,900	6,334,674	1.7
	어근	66,820	83,42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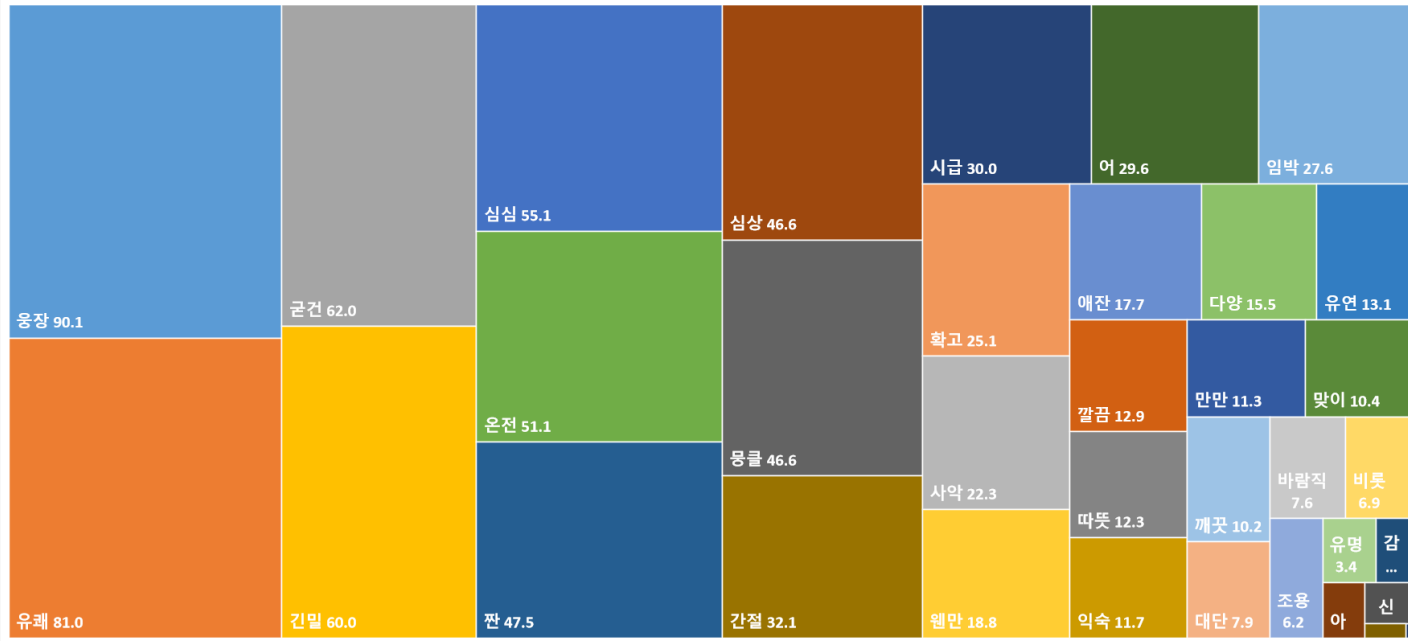
2020-2022년 3년 연속 "통일"관련 공통되게 도출되는 감정어 어근

긍정적 연관	부정적 연관
다양, 비롯, 진지, 굳건, 따뜻, 바람직	여전, 미료, 적절, 시급, 불가피

"북한"에 대한 긍정반응에 대한 부정반응의 비율 (언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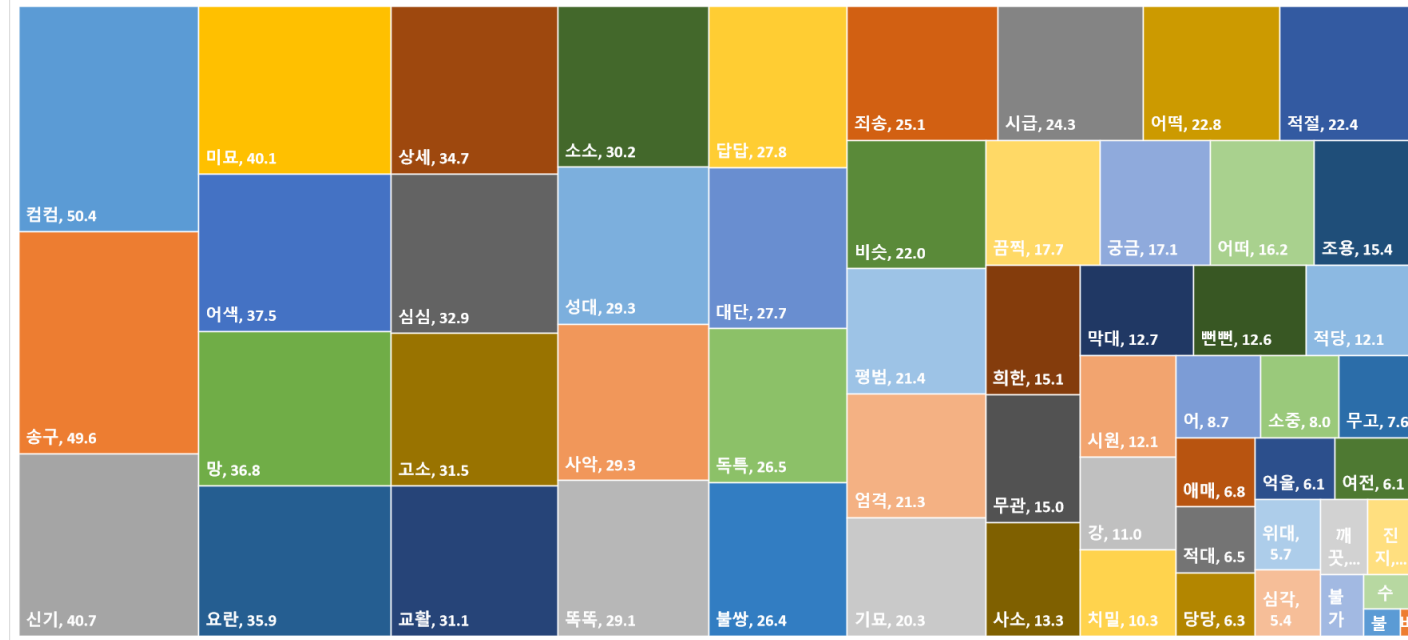
"북한"에 긍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1, 기준값에 대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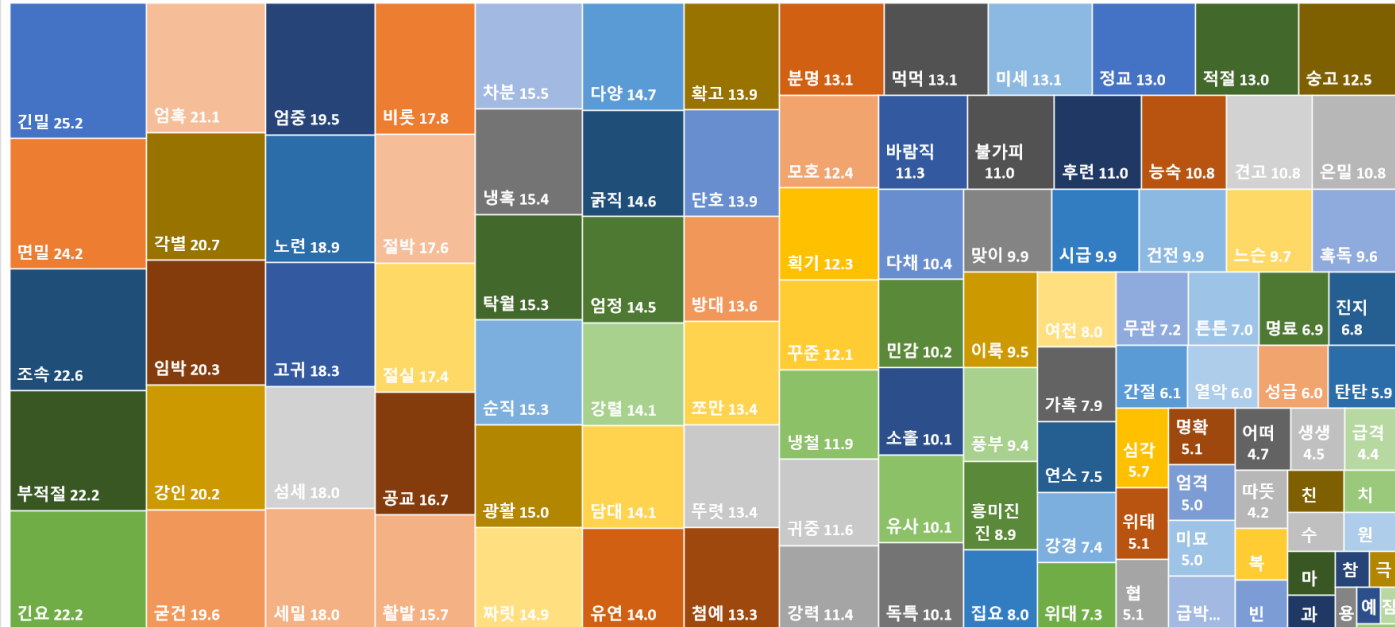
'북한' 키워드에 대한 감정 반응 (2021)

통일관련 언급되는 감정어 빈도 상위 10위 (2020)			
긍정방향		부정방향	
단어	C/M	단어	C/M
대단	24.2	비슷	28.1
신기	9.8	궁금	18.3
다양	7.8	심각	16.0
유명	7.0	끔찍	15.3
비롯	5.5	대단	13.3
따뜻	4.1	고소	10.6
조용	3.4	신기	10.6
진지	3.1	답답	8.1
몽클	2.8	사악	8.1
어	2.8	불쌍	8.0

"북한"에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1, 기준값에 대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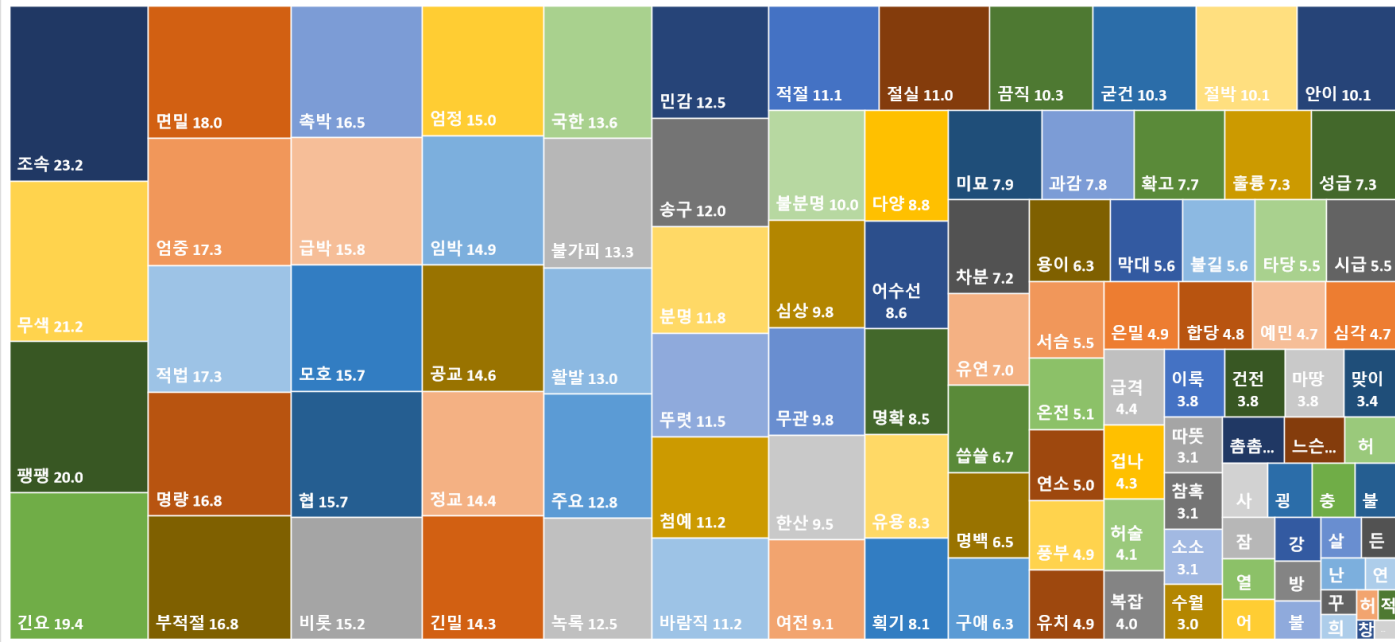
"북한"에 긍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2, 기준값에 대한 %)



'북한' 키워드에 대한 감정 반응 (2022)

통일관련 언급되는 감정어 빈도 상위 10위 (2022)			
긍정방향		부정방향	
단어	C/M	단어	C/M
다양	64.1	주요	60.2
비롯	52.8	심각	52.5
강력	52.6	비롯	40.1
심각	28.1	다양	27.7
긴밀	27.7	적절	14.7
위대	20.4	충분	14.6
진지	14.7	불구	14.6
명확	12.5	유치	14.3
어떠	12.5	시급	12.6
확고	12.0	명백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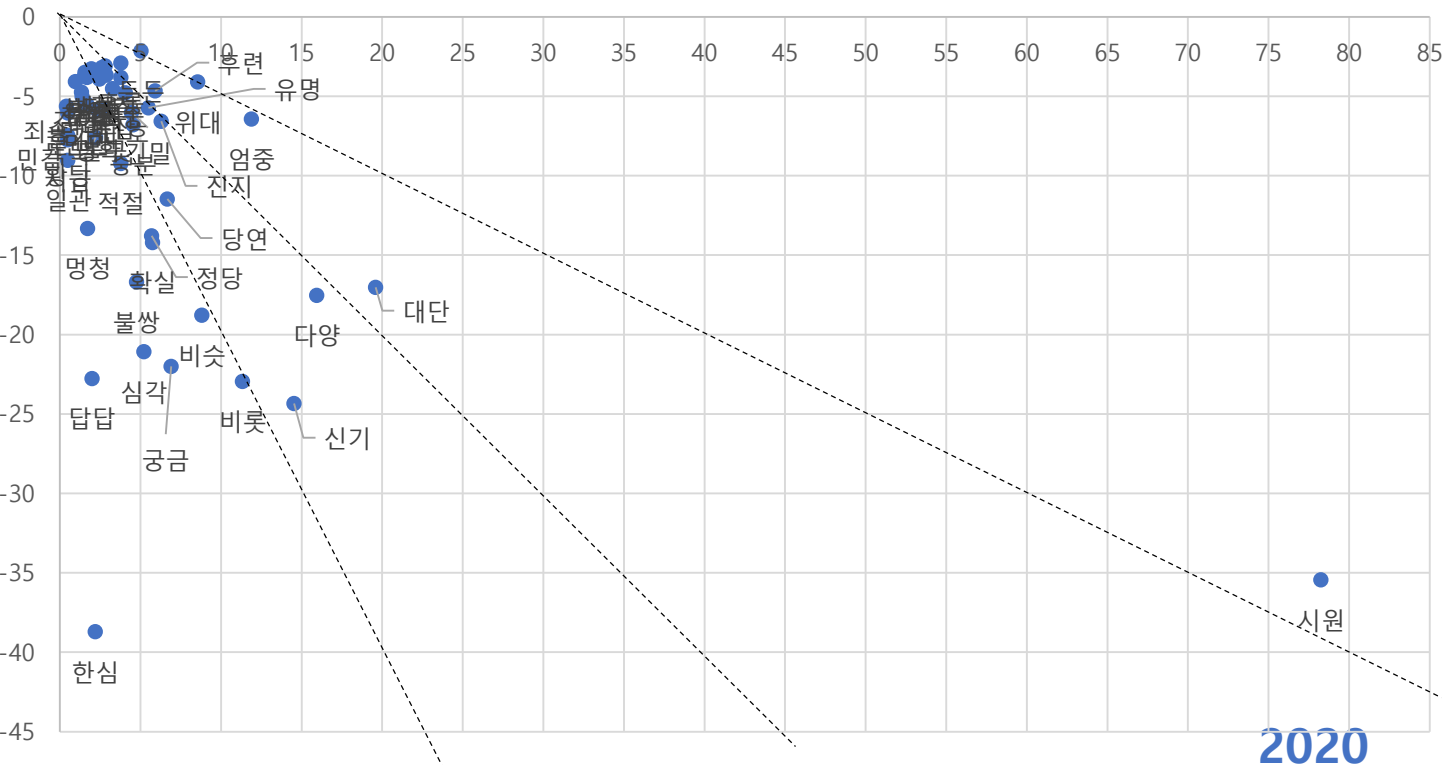
"북한"에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근의 감정 강도 (2022, 기준값에 대한 %)



‘북한’ 관련 감정어 분석/어근

2020. 어근에 대해 긍정감과 부정감정은 동시에 강함

-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대단 (19.5,-17.0), 다양 (15.9,-17.5)이라는 감정반응. 신기(14.5,-24.3)하기도 하나 부정적 뉘앙스
- 주로 부정적 용도로 나오는 한심, 답답, 심각, 불쌍이라는 감정 반응
- 긍정적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어근은 별로 없으나, 유독 “시원(78.2,-35.7)”이라는 감정. 남북, 북미 관계의 획기적 전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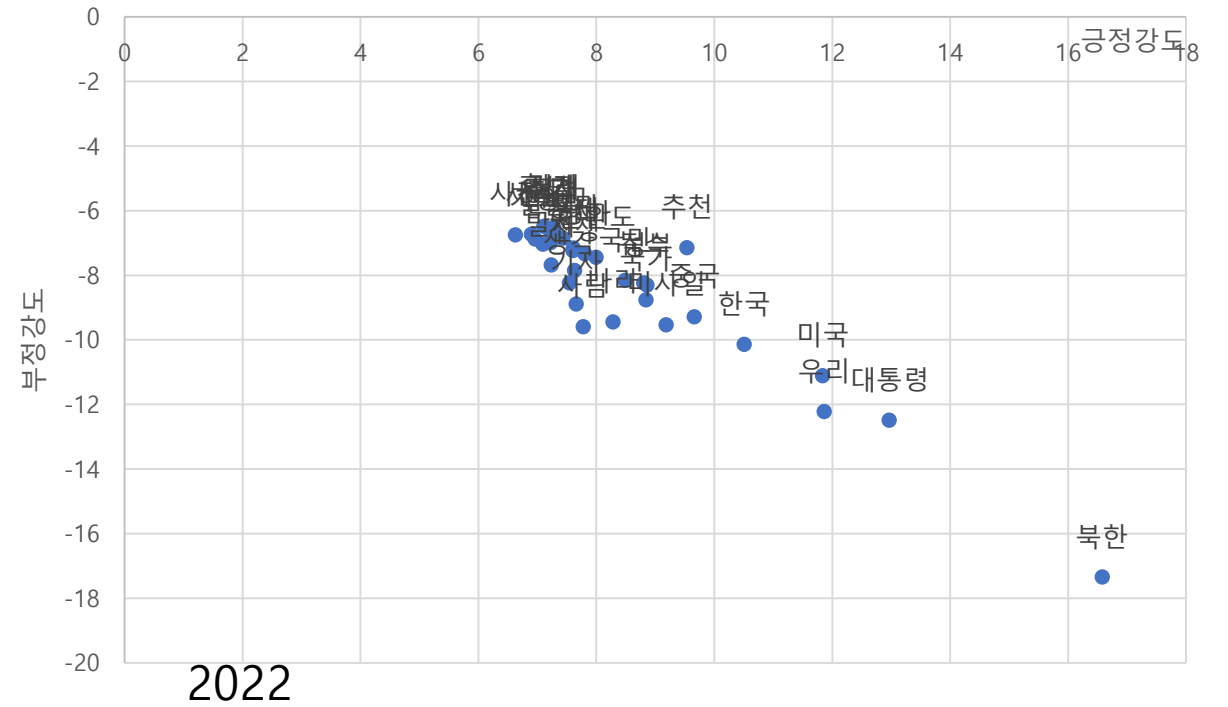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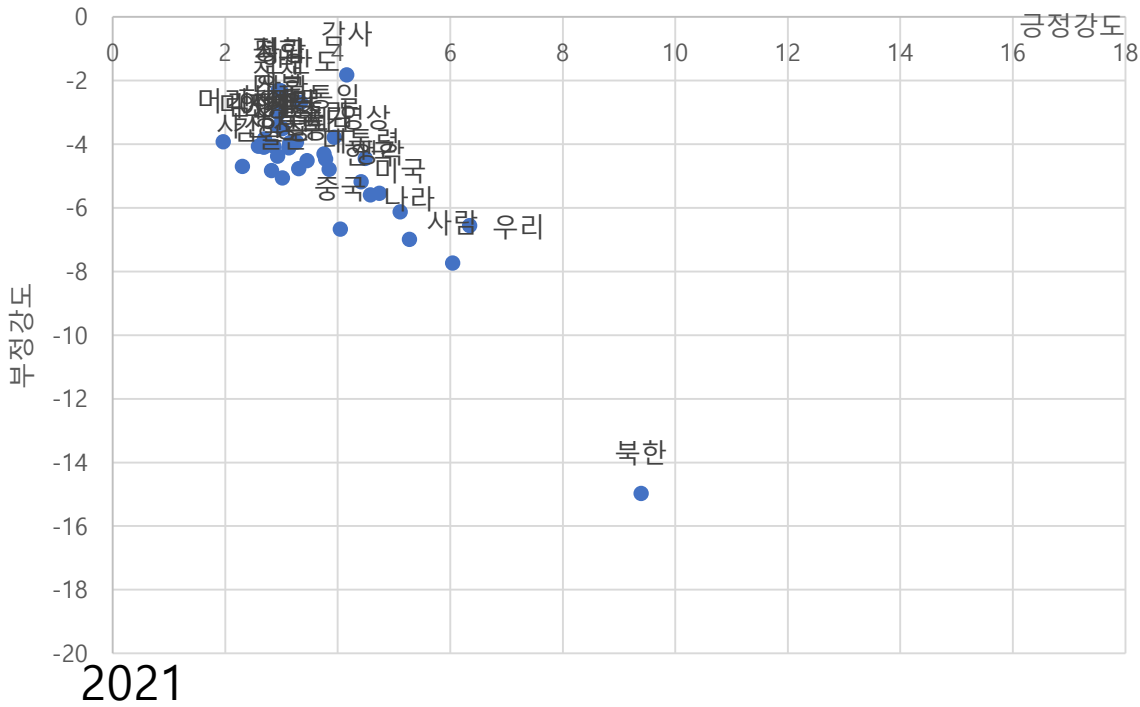
감정어 추출

- 긍정 맥락에서 수집된 어근 198개, 부정 맥락 어근 275개
- 감정강도가 평균 이상, 출현빈도가 median 이상인 단어
- 유의미한 강도로 판단되는 어근 상의 45개
- X축 : 해당 어근이 긍정적 맥락으로 쓰인 경우의 감정강도
*출현빈도
- Y축 : 해당 어근이 부정적 맥락으로 쓰인 경우의 감정강도
*출현빈도

2020

‘북한’ 관련 감정어 분석/명사

- 긍정, 부정 강도 (긍정 점수*빈도, 부정 점수*빈도) 기준으로 각각 상위 30개 씩을 가려냄.
- 긍정 강도가 높은 어휘 대부분이 부정 강도도 높았음.
- 상위 어휘를 포함한 다수의 언어에서 부정 강도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긍정 강도도 전반적으로 증가함.



'북한' 관련 감정어 시계열 분석 (2020-2022)

	2021	2022	2022	2021	2022	2022	2022	2022	2021	2022		21→22			
	긍정(X)	긍정(X)	언급량(Z)	부정(Y)	부정(Y)	언급량(Z)	긍정총량	부정총량	공부정격차	공부정격차		긍정증감	부정증감		
습	0.480551	0.429963	0.777778	-0.95522	-0.81672	0.294118	0.334416	-0.24021	-0.47467	-0.38676		감소	감소	-0.05059	0.138501
기묘	0.429656	0.750324	0.555556	-1.20348	-0.7155	0.441176	0.416847	-0.31566	-0.77383	0.034825		증가	감소	0.320668	0.487985
섹시	1.640297	0.707693	0.814815	-0.47272	-0.44781	0.352941	0.576638	-0.15805	1.167577	0.259878		감소	감소	-0.9326	0.024906
처참	0.81301	0.56827	1.740741	-0.86956	-0.88077	4.735294	0.98921	-4.1707	-0.05655	-0.3125		감소	증가	-0.24474	-0.01121
기괴	1.751157	0.802085	0.888889	-0.18406	-0.67784	0.705882	0.712965	-0.47847	1.567095	0.124249		감소	증가	-0.94907	-0.49377
어마어마	0.247543	0.390384	4	-0.91705	-0.89667	7.205882	1.561535	-6.46128	-0.66951	-0.50628		증가	감소	0.142841	0.020385
어떡	0.504207	0.812334	0.962963	-1.22777	-0.8252	3.176471	0.782247	-2.62123	-0.72357	-0.01287		증가	감소	0.308127	0.402571
뿌듯	1.106821	0.869217	0.925926	-1.30946	-0.4863	3.882353	0.80483	-1.888	-0.20264	0.382913		감소	감소	-0.2376	0.823154
지루	0.403155	1.035168	0.703704	-0.76041	-0.95146	1.441176	0.728451	-1.37123	-0.35725	0.083705		증가	증가	0.632013	-0.19106
웬만	1.187512	0.706286	1.703704	-1.33228	-0.93522	2.529412	1.203303	-2.36555	-0.14477	-0.22893		감소	감소	-0.48123	0.397061
심심	1.550954	0.889781	1.481481	-1.32927	-0.83248	2.323529	1.318195	-1.9343	0.221684	0.057299		감소	감소	-0.66117	0.496787
똑똑	0.159062	0.490741	5.962963	-1.29143	-0.78504	4.558824	2.926269	-3.57888	-1.13237	-0.2943		증가	감소	0.331679	0.506387
저렴	0.857892	0.857731	2	-0.842	-0.90319	5.441176	1.715463	-4.91439	0.015895	-0.04545		감소	증가	-0.00016	-0.06119
죄송	1.016283	0.833386	2.333333	-1.2508	-0.91842	7	1.944568	-6.42891	-0.23452	-0.08503		감소	감소	-0.1829	0.332388
용감	0.056206	1.012504	1.62963	-0.56493	-0.90613	1.676471	1.650007	-1.5191	-0.50872	0.106374		증가	증가	0.956299	-0.3412
미묘	1.424474	1.049863	1.592593	-1.40127	-1.07912	1.382353	1.672005	-1.49172	0.023202	-0.02926		감소	감소	-0.37461	0.322153
귀중	0.555448	1.115994	1.518519	-0.37777	-0.79747	0.588235	1.694658	-0.4691	0.177675	0.318521		증가	증가	0.560546	-0.4197
깔끔	1.129246	0.761401	3.296296	#####	#####	1.470588	2.509802	-1.29877	0.557541	-0.12177		감소	증가	-0.36785	-0.31146
무고	0.492797	0.946343	2.185185	-1.07647	-0.93819	3.147059	2.067935	-2.95252	-0.58368	0.008158		증가	감소	0.453546	0.138287
적당	0.413348	0.839242	3	-1.1206	-0.88785	4.088235	2.517727	-3.62975	-0.70726	-0.04861		증가	감소	0.425894	0.232752
타당	0.561258	0.989012	2.296296	-0.71126	-1.05548	4.735294	2.271065	-4.99802	-0.15	-0.06647		증가	증가	0.427754	-0.34423
꾸준	1.14869	1.121204	1.888889	-1.0673	-1.00839	1.970588	2.11783	-1.98712	0.081392	0.112815		감소	감소	-0.02749	0.058909
은밀	0.487686	1.107677	1.962963	-0.58802	-1.0489	2.294118	2.174329	-2.40629	-0.10034	0.058781		증가	증가	0.619991	-0.46087
조용	1.062439	0.817925	3.740741	-1.15411	-0.90723	5.735294	3.059644	-5.20326	-0.09167	-0.08931		감소	감소	-0.24451	0.246878
끔찍	0.242334	0.8156	3.777778	-1.17668	-0.86576	9.794118	3.081154	-8.4794	-0.93435	-0.05016		증가	감소	0.573266	0.310918

2020->2021년

- 북한 관련해 민감-타당-예민이라는 감정에 긍정적인 반응이 증대 (긍정증가+부정감소)
- 북한에 대한 소중한고-튼튼하고-어마어마한 등의 감정에 대한 피곤감이 나타남 (긍정감소+부정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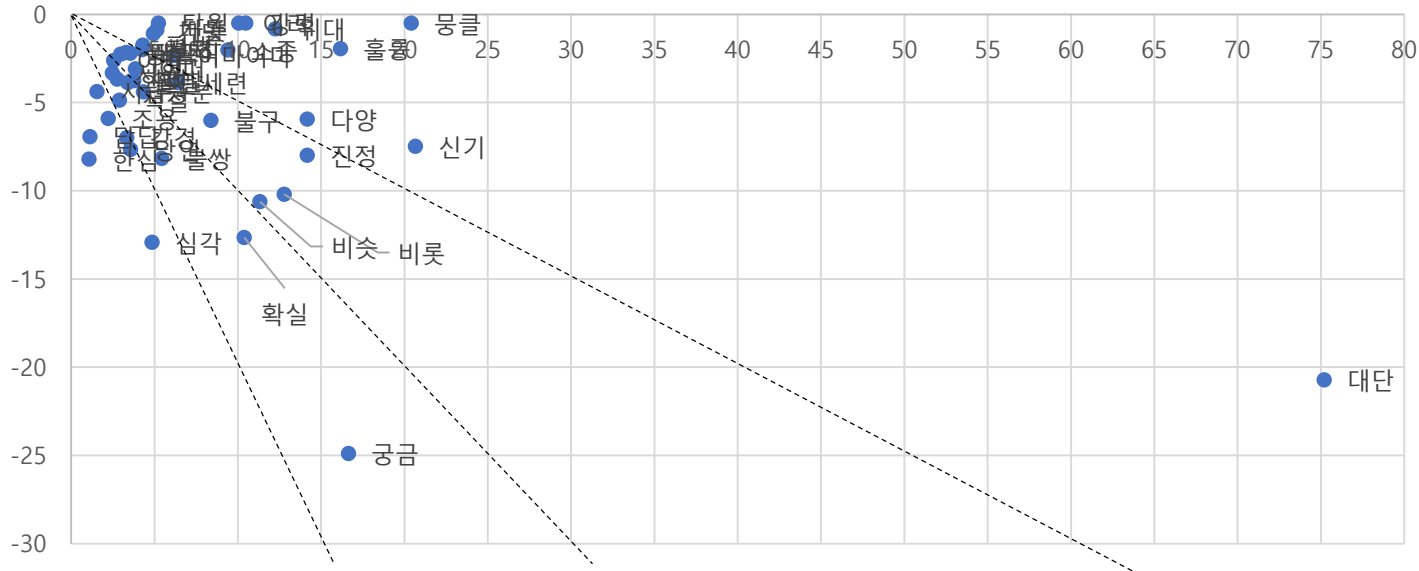
2021->2022

- 북한에 대해 긴밀-따뜻-만만한 것에 대한 피로감 증대
- 북한에 대해 어떡하냐-적당히 해라-엄격히 하자 등의 감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 증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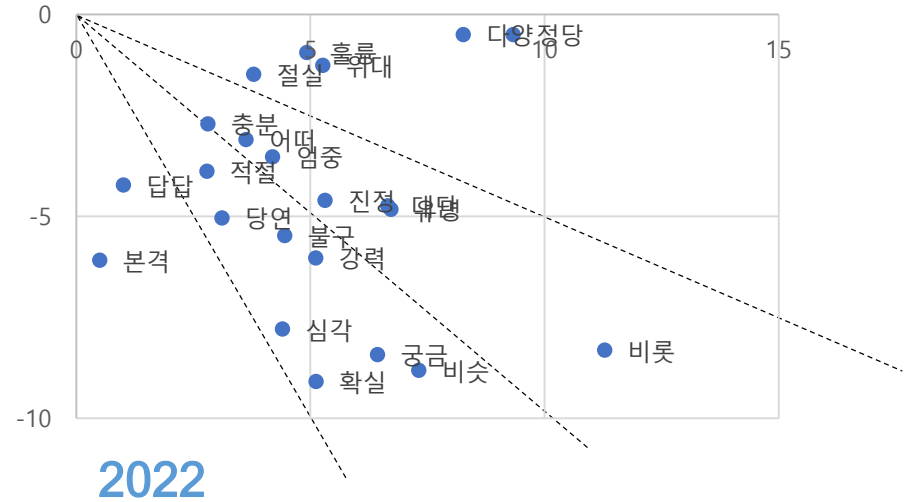
‘남북’ 관련 감정어 분석/어근

- 2021. 상위 어근의 전반적 감정 강도는 비슷
 - 대단(79.2,-20.7)이라는 예외적 어근 존재
 - 비롯이나 비슷, 확실 등은 중간정도 강도로 양가적 감정을 보임.
 - 궁금(15.6,-24.9), 확실, 심각 등이 부정적 뉘앙스로 나타남.
 - 긍정적으로는 신기 (20.7,-7.5), 몽클 (20.4,0), 흘룽 (16.2,-2.0) 등의 단어가 나타남

- 2022. 전체적으로 상위 어근의 감정값 약해짐.
 - 비롯, 비슷, 확실, 궁금이 비슷한 수준의 양가적 입장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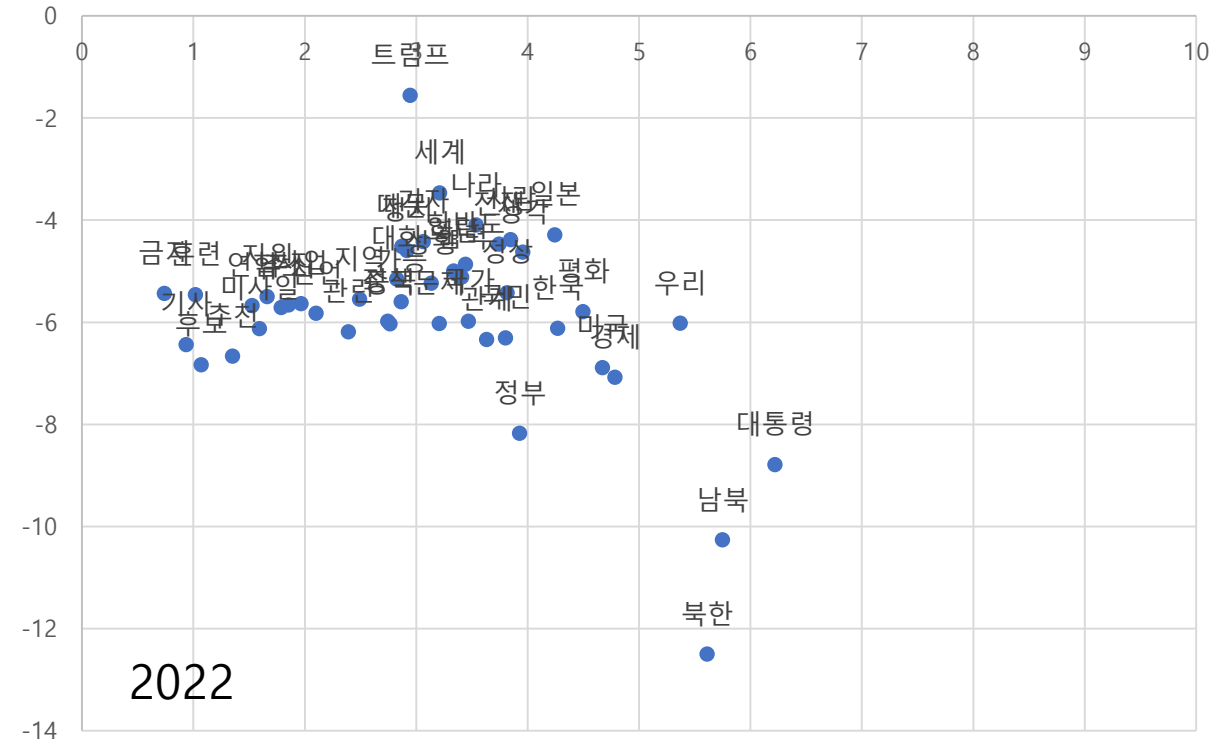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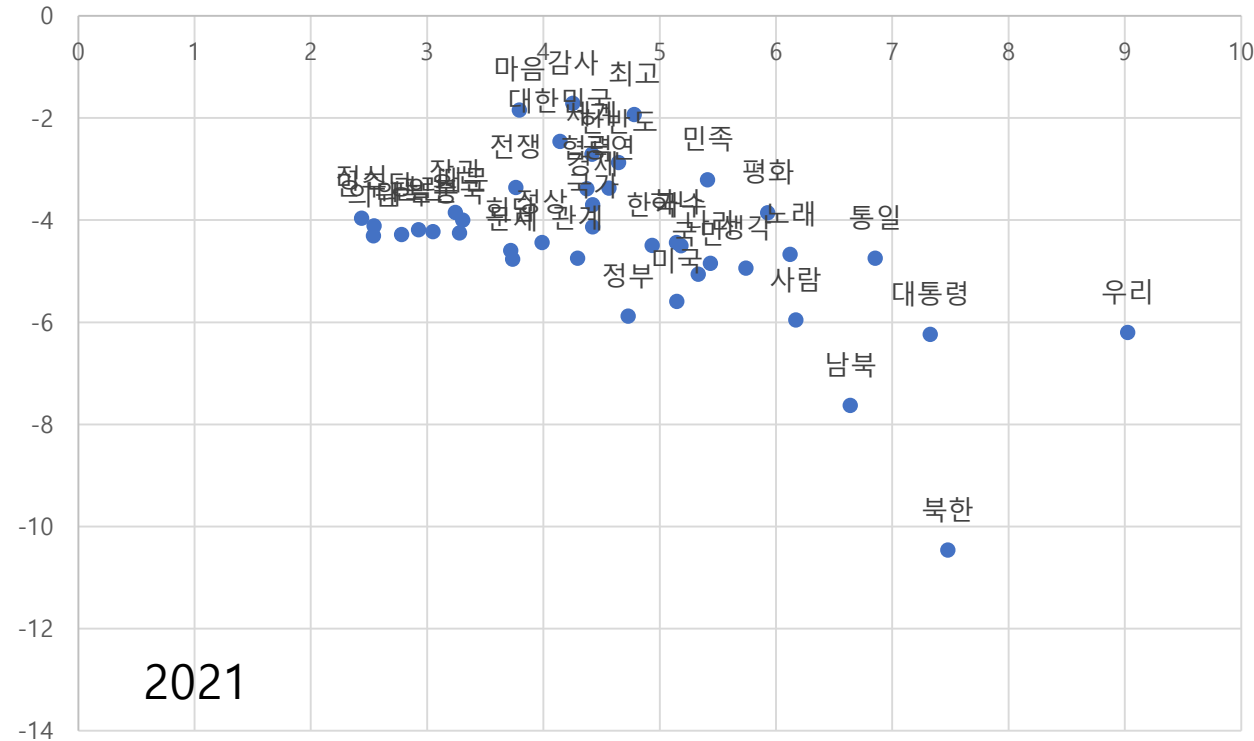
2021



2022

‘남북’ 관련 감정어 분석/명사

- 긍정, 부정 강도 (긍정 점수*빈도, 부정 점수*빈도) 기준으로 각각 상위 30개 씩을 가려냄.
- 긍정 강도가 높은 어휘 대부분이 부정 강도도 높았음.
- 북한, 남북, 대통령, 우리와 같은 어휘들의 경우 2021년에 비해 2022년 부정 강도가 증가하고 긍정 강도는 감소함.



‘남북’ 관련 감정어 시계열 분석 (2020-2022)

- 2020->2021

- 긍정 증가 조합 : 솔직-예민-어색-신기-한심-똑똑
- 부정 증가 조합 : 똑똑-한심-생소-답답
- 부정 감소 조합 : 급격- 위태-열악-든든
- 남북관계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보이며, 급격하고 위태로움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적어지나, 새로운 관계가 답답하고 생소하고 한심하다는 정서 역시 나타남

- 2021->2022

- 긍정 감소 : 예민-불가피-뚜렷-굳건
- 부정 감소 : 객관-불가피-진정
- 부정 증가 : 위태- 원만-바람직-간단
- 남북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입장, 불가피한 변화에 대한 긍부정 동시 증가 등의 방향성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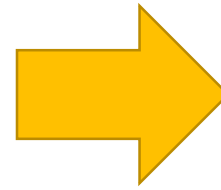
-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양극단 감정은 적게 보이나 주요 감정어들이 대부분 양가적 양상
- 관계 경색과 더불어 양 극단에서 강렬한 긍부정 단어들도 발견됨.
- 통일 관련 일관되게 반복되는 어근은 비롯, 그리고 비슷임.
- 시간이 지나며 통일에 대해 애매해 불편하고, 절실한 느낌이 피곤하며, 확실한, 혹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선호가 떨어짐을 시사

북한

- 통일이라는 감성에 비해 훨씬 강렬한 감정반응이나 마찬가지로 주된 키워드는 대체로 양가적 감정 양상
- 2022년 갑자기 튀어나오는 긍정 편향 어근들은 방어적 인상이 존재
- 대단하다는 감성도 나오지만, '비슷'하고 '비롯'한다는 감성
-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진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피곤감, 그리고 적당히, 엄격히 등에 대한 감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 증대

남북

- 통일과 북한에 비해 훨씬 약한 감정 반응. 양가적인 양상은 유사.
- 비슷하고 비롯함에서 나타나는 피곤감.
- 최근 3년간 남북에 대한 감정 강도는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며 관심의 강도 자체가 약해짐.



전체적인 통일, 북한 관련 어근에 대한 양가감정

통일에 대해서는 불편감과 피로감

북한에 대해서는 관계에 따라 잠시 우호적이다가도 쉽게 방어적인 조소와 경직되는 태도로 변환

남북에 대해서는 관심의 지속적인 감소

- 지속적인 심리적 마모, 좌절감, 피로감의 반복
- 사회 갈등의 핵심적 주제
- 사회적 공정성 이슈와 함께 사회적 울분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정 이슈와는 달리, 차라리 생각을 안하고 싶어하는 양상?

울분과 외상후 울분장애

- 울분은 부정적 삶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감정적 상태 (M. Linden)
 -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모욕당하고, 실패했다는 느낌, 그리고 복수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감정을 포함한다고 설명
 - 부당함과 무력감, 그리고 복수하고 싶으나 적절한 목표를 찾지 못한다는 심리적 상태
 - 이혼, 괴롭힘, 절차적 부당함, 직장에서의 과도한 감독 등에 의해 유발되며 장애를 가진 류마티스 환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간호사, 여객선 참사의 생존자……
- 울분은 복잡하나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기반
 - 만성적인 자극이 지속될수록 심해지고 복잡해지며, 점차 삶의 많은 영역에 침투해 장애를 유발

• 외상후울분장애

- 1) 지속되는 울분의 감정 2) 직접적인 심리적 반응 3) 개인의 기본적인 믿음과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상황
- 감정 조절의 어려움, 무력감 (helplessness), 자책, 좌절, 우울 등
- 식욕 저하와 수면 부족, 의욕 부족, 사회적 위축, 심할 경우 자살 충동
- ICD 등재 검토 중. DSM-5에서는 만성 적응장애 (Chronic adjustment disorder)에 포함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는 달리 외상후울분장애는 좀더 일상적인 이벤트에 관련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주된 증상 양태는 불안에 관련되나 외상후울분장애는 울분에 관련
- 심각한 위험 상태를 겪은 경우 보다는 실직위험, 집단 괴롭힘 등 평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의 집합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보임 : 특히 화와 복수에 대한 감정은 지속적인 경우가 매우 흔함
- 독일 인구 2.5% 수준에서 증상을 보임

국내 외상후울분장애 연구

- 지속적인 울분은 외부로 향하면 사회적 폭력과 증오로, 내부로 향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문화적 증후군인 화병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울분, 그리고 외상후울분장애는 한국에서 무척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
 - 통일이라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울분을 극단적으로 솟구치게 만들 수 있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류남길 (n=174)

- 울분 증상이 우울과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그리고 불안과 자살시도를 매개

조수현 (n=290)

- 1.7% (5명) PTSD, 2.1% 화병
- 화병과 외상후울분장애의 진단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환자는 없음
- 사례가 모두 적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증상적 패턴은 차이가 있음
- 외상후울분장애- 우울 / 화병 - 불안, 공격성에 연관됨

이승훈 (n=2,101)

- 울분 증상 : 42.7%
- 높은 우울 증상 (울분의 60%를 설명) , 30-39세, 저소득 인구에서 높게 나타남.

국내 외상후울분장애 연구

- 유명순 (2018, n=2,024)
 - 39.9%가 만성적인 울분 상태, 14.7%가 외상후울분장애 (Korean version of PTSD scale)
 - 부정적 삶의 사건, 저소득, 저교육, 무주택, 자유주의정권하에서의 보수적 정치성향 등이 주요한 예측인자
- 유명순 (2019, n=2024)
 - 울분의 주된 위험인자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 부정적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위
 - 개인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경험한 부정적 생활경험을 부당하고 굴욕적이라고 해석할 때 울분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적인 모델
- 주영기 (2021) : 1990-2018년 사이 신문 기사의 울분 프레임 분석
 -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분노, 손해에 대한 울분 표현이 1990-2018년 전체 신문기사의 20% 이상에서 나타남
 - 주로 울분은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의 박탈, 모욕, 그리고 권력 남용과 연결
 -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사고의 피해자가 가장 울분을 많이 표현하는 그룹으로 묘사
 - 정치인, 노동자, 유명인사, 일반 대중의 순으로 울분과 연결되어 묘사
 - 신문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다른 해석을 보이는 양상도 보고됨.

- 국가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울분 : 15%
-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울분 : 10%
- 다른 국가의 문제 : 5%
- TV 오락프로그램/드라마 : 5%
- 스포츠, 대중문화, 노동 관계, 과거 일제 감 정기 역사, 세월호 사건, 북한 관련 사건
..... (>3%)

남한. 울분 사회

- 독일의 경우 통일 후 30년 이상 경과 하면서 정신건강을 비롯한 보건학적 지표에서 양 사회의 차이가 줄어들
 - 남북한의 경우 동·서독 보다 훨씬 큰 격차를 가지고 접근을 시작
 - 본격적인 통일 과정 전에, 상호 접근과 신뢰 구축 단계에서 정신건강 체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 갭을 줄여야 할 필요성
 - 남한 사회가 통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남한 사회는 이미 공정함에 대한 불신과 연관된 울분이 가득한 상황
 - 통일 혹은 남북 협력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 (남한 자원의 투입, 남한으로의 대량 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유입 등)은 안 그래도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젊은 연령대의 박탈감을 강화시킬 가능성
 - 울분 등 부정적인 감정이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남한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우경화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
- *인간의 원초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심리적인 투사가 사회적으로 범람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며, 정치 갈등, 계급 갈등, 세대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의 전선에서, 정치인과 미디어의 지원 하에 확대 재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음*

통일과 정신건강.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적 감정의 표현에 대한 정신의학-인문학-사회학의 공동 연구가 필요

- 남한 사회 내 다양한 그룹 간 갈등, 특히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
- 여기에 북한, 그리고 통일 이슈가 추가되면 또 하나의 남한 내 갈등 요인으로 표면화 될 수 있을 것
- 개인의 심리와 공정함, 인권, 혐오, 울분 등 사회적 감정의 표현에 대한 연결 고리와 개입 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대중 매체 및 인터넷의 키워드/빅데이터 분석, 오피니언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의 형성

- 정신건강문제와 결부된 인권의 의미를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 거부라는 담론을 넘어서, 타자성, 그리고 집단적 투사에 대한 통찰의 문제로 확대
- 울분으로 이어지는 사회 계층, 세대 간 갈등, 소수자, 난민 문제에 대한 갈등의 전선이 존재
- 이 연장선 위에서 남한 사회가 북한과 북한 주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시작

감사합니다.

통일 평화연구 조사개요

서울대학교 인간행동학연구소

(수집 키워드)

연구팀이 선정한 15개 키워드(통일, 북한, 남북, 남북관계, 한반도, 김정은, 미사일, 북한 핵, 분단, 도발, 한반도, 단일민족, 대북정책, 평화프로세스, 노스코리아) 중 수집 기간 각각에서 수집량 100,000 문장을 충족한 키워드는 **통일, 북한, 남북, 김정은, 미사일 총 5개**

(수집 대상기간 및 구분)

S1 : 2019. 7. 1 ~ 2020. 6. 30

S2 : 2020. 7. 1 ~ 2021. 6. 30

S3 : 2021. 7. 1 ~ 2022. 6. 30

(수집 소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등 일간지를 비롯한 50여 언론사의 뉴스 및 댓글

네이버 뉴스와 댓글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등 SNS 게시물 및 댓글

레몬테라스, 디젤매니아 등 200여 포털 커뮤니티의 게시물 및 댓글

블라인드, 옴팍, 클리앙 등 오픈커뮤니티 20곳의 게시물 및 댓글

(수집과정)

언론사에 등록된 키워드 관련 뉴스에 대한 Crawling을 진행. Data는 뉴스 작성일, 뉴스 제목, 뉴스 내용, 댓글을 포함하여 수집하였음. SNS와 카페, 오픈커뮤니티의 경우 작성일과 본문내용, 댓글을 수집하였음. 확보한 데이터는 중복제거하고 각 기간과 키워드 별로 100,000 문장을 기준으로 삼았음.

(수집 문장수)

	통일	북한	남북	김정은	미사일
S1	603,180	700,243	142,569	174,025	112,552
S2	336,342	759,224	651,443	182,290	249,242
S3	1,108,125	1,838,355	693,407	411,328	1,063,310

(분석 알고리즘)

KoBERT v.0.2.1 사용

KoBERT는 SKT Brain에서 학습, 공개한 Model로 한국어 맞춤형 BERT를 구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KoBERT는 한국어 Wikipedia 문장 5M, 단어 54M 과 한국어 뉴스의 문장 20M, 단어 270M을 기반으로 Pre-training을 진행하였으며, Sentencepiece tokenizer를 사용.

(<https://github.com/SKTBrain/KoBERT>)

초기 분석 설정 값, 시스템 값은 아래와 같음

<pre>'attention_cell': 'multi_head', 'num_layers': 12, 'units': 768, 'hidden_size': 3072, 'max_length': 512, 'num_heads': 12, 'scaled': True, 'dropout': 0.1, 'use_residual': True, 'embed_size': 768, 'embed_dropout': 0.1, 'token_type_vocab_size': 2, 'word_embed': None,</pre>	<p>AMD Ryzen 7 5800X 64GB Memory G Force RTX 2080</p> <p>Ubuntu 18.04</p>
--	---

(파인튜닝 과정)

Fine-tuning 단계에서 수집 데이터의 제목과 내용(첫 네 문장) Input Data로 사용함. 날짜에 따른 편차를 제어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투입하였으며. Input Data의 입력 순서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투입 역시 무작위 순서로 진행함.

각 키워드 별 Basic 모듈에 파인튜닝을 실시(총 5회)하였음.

(전처리 과정)

제목이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내용만을 반영하지는 않음. 일례로 [특집], [단독] 과 같은 기사의 속성, 특정기호의 중복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언론사명, 언론사 홈페이지 주소, 기자명, 이메일 주소 등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전처리를 진행.

- ① [특집], [단독]과 같은 뉴스의 속성을 제거
- ② 언론사명, 언론사 홈페이지, 기자명 등 뉴스 내용과 관련이 낮은 내용 제거
- ③ 보도 사진에 대한 캡션 제거
- ④ ... 과 같은 중복 기호 제거
- ⑤ © 와 같은 특수문자 제거

(감정 사전)

상세수치를 추출하기 위한 감정사전은 2018년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 Data Intelligence Lab에서 공개한 감정사전을 사용함. 총 14,843개의 1-gram, 2-gram, 관용구, 문형, 축약어, 이모티콘 등에 대한 긍정, 중립, 부정 판별 및 정도(degree)값이 사용.

사용할 감정사전은 아래 소스로부터 통합되어 개발되었음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glosses) 분석을 통한 긍부정 추출
- (2) 김은영(2004)의 긍부정어 목록
- (3) SentiWordNet 및 SenticNet-5.0에서 주로 사용되는 긍부정어 번역
- (4)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축약어 및 긍부정 이모티콘 목록

(진행기간)

2022. 7. 14(수집 시작) ~ 2022. 9. 6(분석 종료)